2021년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지원사업

예산의 동제 洞祭

예산문화원

예산의

동제

洞祭

예산에 내려오는 동제에 대한 기록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동제의 목적은 크게 종교적인 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동제는 온 마을 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농사가 잘되고 고기가 잘 잡히게 해달라고 신께 비는 행사입니다. 이를 통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 그 해를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마을사람들이 합동으로 제비를 추렴하고 제물을 함께 준비하며, 동제를 지내기 전에는 대동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동제 후에는 같이 모여 결산을 하고 뒷풀이를 하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강해짐으로써 마을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동제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마을 주민에게 종교적, 사회적 순기능이 있는데도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아쉽고 동제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 중 하나이므로 이를 보존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군과 예산문화원에서는 예산군 내 40여개 마을에 동제를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각 마을마다 다른 형태로 지내는 동제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차원에서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의 집필을 맡아주신 박광수 박사께서는 예산군내 동제를 지내는 마을을 찾아가 동제의 모습을 사진촬영도 하고 마을의 원로나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채록도 해서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각이나 이른 새벽에도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발간되도록 지원해주신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 그리고 후원해 주신 이승구 예산군의회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잊혀져가는 고유문화의 하나인 예산의 동제를 보존, 전승하고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예산문화원장 김 종 옥

목 차

Ⅰ. 예산의 동제 개관 10

Ⅱ. 예산의 산신제

1. 광시면 대리 산신제 20
2. 광시면 운산1리 산신제 30
3. 대흥면 갈신1리 산신제 44
4. 덕산면 광천1리 산신제 56
5. 신암면 계촌리 산신제 68
6. 신암면 예림1리 산신제 80
7. 신암면 조곡1리 산신제 94

Ⅲ. 예산의 목신제

1. 대흥면 상중리 목신제 110
2. 신양면 차동리 정자나무 칠석제 120

Ⅳ. 예산의 유왕제·미륵제·머슴제

1. 신암면 신종2리 유왕제 130
2. 대흥면 동서리 망태할아버지제 142
3. 대흥면 탄방리 머슴제 152

Ⅴ. 예산 동제의 특징

1. 산신제의 특징 162
2. 목신제의 특징 164
3. 유왕제·미륵제·머슴제의 특징 166

예산의 동제

Ⅰ. 개관

예산의 동제 개관

농업을 생업으로 여기며 살아온 농경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육체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경작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경은 파종과 수확의 전 과정에 있어 시간 즉, 절기가 중요하다. 잠시라도 시간이 지체된다면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어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땅에서 나는 곡식만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소출의 감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농경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적기에 노동력을 투입하여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공동체의 협조가 절실하다. 동일 성씨의 씨족 공동체는 혈연(血緣)중심으로 이루어진 노동력의 기본 단위가 된다. 나아가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마을 단위는 지연(地緣)이라는 큰 집단으로 성장하면서 강한 힘을 발휘했다.

이른 시기에는 인간이 생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염원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믿음과 의식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보편적인 행위로 드러난 것이 제의를 통한 기원이었다. 마을을 지켜준다는 어떤 대상을 통해 길흉화복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어느 사회건 유사하게

나타났고 오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동제는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나 <후한서(後漢書)> 동이전과 같은 중국의 문헌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시기로 보면 삼한(三韓)의 제천(祭天) 행사까지 소급하여 올라갈 수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대지(大地)에 씨를 뿌리면서 식물의 생장에 탈이 없도록 하늘에 제사하였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며 그 고마움을 하늘에 표현했다. 이러한 제천행사는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국중대회(國中大會)였다. 그 규모로 볼 때 현재의 동제와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제의로 보면 오늘날의 동제와 동질적이었다.

마을에서 지냈던 제의는 동제(洞祭)나 동신제(洞神祭)로 불렀다. 동제의 대상에 따라 '산신제', '목신제', '장승제', '서낭제', '미륵제', '칠석제', '유왕제'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예산군에서 전승되는 산신제는 산신제 단독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오방제, 노신제, 목신제, 상당제와 하당제가 함께 거행되기도 했다. 표1]은 기존의 예산 지역에서 조사된 산신제이다.

표 1] 예산의 산신제 [1)]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고덕면 고흠2리	산신제(황매실산 제단) 칠석제(마을회관부근)	정월 보름 께 택일, 7월 7일(11시 이전)	현행
광시면 대리	백월산 산신제, 장승제(폐지) 느티나무고사	정월 열나흘	현행
광시면 운산리(큰말)	산신제	정월초승 택일	현행
대술면 궐곡1리(고새울)	산신제	10월 보름	현행
대술면 송석리(백제울)	산신제(마을 개울가 언덕 위 소나무)	정월 열나흘→ 10월 초승	중단

1)지역문화유산 발굴조사사업 용역최종보고서, 예산군, 2019. pp.37~40을 제의별로 정리한 것임.
이하표도 이와 같음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대술면 송석리(수골)	산신제 (마을 뒷산 정상 산제당)	정월 열나흘	중단
대술면 송석리(화정)	산신제 (마을 뒷산 정상 산제당)	100월 택일	중단
대술면 이티1리(습실)	산신제 (간탄골 정상 산제당)	정월 열나흘	중단
대술면 이티2리(소고리)	당제사(당제)	정월 택일	중단(1990년대)
대흥면 갈신1리(큰말)	산신제(상당)→칠성제(중당), 장승제(하당)	정초→정월보름	현행
덕산면 광천리	산신제(마을 뒤 상황산 중턱 산제당)	정월초 택일	현행
덕산면 상가1리 (병목안)	산신제 (가야산 관음전)	10월 10일	현행
덕산면 상가2리 (동곳말)	산신제	정월 또는 시월 택일	중단
덕산면 상가3리 (남전말)	산신제	정월 또는 시월 택일	중단
신암면 계촌리	산신제→유왕제	정월 초 택일(닷새 안으로)	현행
신암면 조곡1리 (윗새실)	산신제 (마을 뒷산 산제당)	정월 초사흘	현행
신양면 귀곡리 (밀무리)	산제 (마을 동편 산중턱 바위)	정월 초 택일	중단
예산읍 간양2리	산신제 (덕방산 정상의 산제당)	10월 초하루~초사흘 중 택일	현행
예산읍 예산4리 (교남동)	산신제	정월 보름, 2월 1일 택일	현행
오가면 원천3리 (안샘골)	산신제	정월 열나흘	중단(1950년대)
응봉면 계정1리 (안달그물)	산제 (안닭우물 남쪽 산 중턱)	정월 초사흘	현행
응봉면 계정2리 (박달그물)	산제	정월 초 택일	중단(1970년대)

예산의 목신제는 당산제, 둥구나무제, 서낭제, 목신제, 수호제, 고목장군제, 행장군제 등으로 불렸다. 목신제는 단독으로 거행되기도 하지만 산신제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표 2] 예산의 목신제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광시면 대리	느티나무 고사	정월 열나흘	현행
대술면 궐곡2리(은행정)	은행나무제	10월 24일	중단
대술면 마전1리	정자나무 고사	2월 1일→정월 열나흘	현행
대술면 마전2리(고성)	느티나무 고사	정월 보름	현행
대술면 마전2리(무성)	향나무 고사→샘제(칠석제)	7월 7일	현행
대술면 화산리	둥구나무제(칠석제)	7월 7일	중단(1980년대)
대흥면 교촌1리(향교말)	행장군제(마을입구)	1월 2일 또는 3일	현행
대흥면 상중리(상리)	느티나무 고사	2월 1일	현행
덕산면 둔1리	둥구나무 제사	7월 7일	중단
덕산면 복당1리	느티나무 고사	정월 택일	중단(1960년대)
신양면 가지1리	느티나무 고사	2월 1일	현행
신양면 녹문리(송암)	고목나무제(고목장군제)	정월 그믐	현행
신양면 차동리(대천)	정자나무 고사	7월경 택일	현행
응봉면 송석리(솔안말)	고목제와 샘제	7월 7일	중단

예전에는 마을 입구에는 장승을 세워 마을 수호신으로 위했다.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아준다는 믿음이 강했었다. 예산 지역에서는 광시면 대리 구억말, 운산리 서달, 대흥면 교촌리, 갈신리 큰말 등에서 장승제를 지냈다.

표 3] 예산의 장승과 솟대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광시면 대리	장승제	정월 열나흘	폐지
광시면 운산1리(서달)	장승제	정월 그믐	중단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대흥면 갈신1리(큰말)	장승제(하당)	정초→정월보름	현행
삽교읍 두1리(두루머리)	장승제	정월 열나흘	중단(1950년대)
삽교읍 두6리(보안말)	유왕제→장승제	정월 열나흘	중단(1950년대)
신암면 탄중리(전탄리)	장승제	정월 열나흘	중단(1960년대)

예전에는 마을마다 서낭당이 있었다. 마을에서 외부와 통하는 곳에 서낭당이라고 부르던 곳이 한 두 곳은 반드시 있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변에 있었던 서낭은 훼손되어 현존하는 서낭당을 보기 어렵다.

표 4] 예산의 서낭제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고덕면 대천리(고실)	서낭제	정초 택일	중단(1992년)
대술면 방산리	서낭제(마을입구)	1월 5일	현행
봉산면 구암리	서낭제	정월	중단(1970년대)
봉산면 마교리	서낭제 (무주고혼제사, 10.30)	정월 정일(丁日)	중단
삽교읍 효림리 (방죽머리)	서낭제	정월	중단(1960년대)
신양면 귀곡리 (엄나무골)	서낭제	2월 1일	중단
신양면 녹문리(송암)	서낭제	정월 열나흘	중단

억불책을 썼던 조선시대에도 민간에서는 미륵 신앙이 보편적으로 신앙시되었었다. 미래불인 미륵에 대한 집착은 현세의 고통을 극복하는 염원이 담겨 있었다. 예산에서 미륵제를 지내온 곳은 다음과 같다.

표 5] 예산의 미륵제(석불)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대술면 방산리	미륵제(이남규 고택 인근)	1월 9일	현행
대술면 장복2리(고모리)	부처당 제사	2월 1일	중단
덕산면 상가2리	미륵제(남연군묘 부근)	-	중단
덕산면 신평1리(작명두)	미륵제	음력 정월 보름 전 택일	중단(1950년대)
봉산면 금치2리	갓바위(미륵)(보광사 마당)	-	중단
봉산면 화전2리	석불제사 (사면석불:보물제794호))		중단
삽교읍 성리(목시)	미륵제	정월 중 택일	중단(1960년대)
삽교읍 신리	미륵제 (석조보살입상, 보물 508호)	10월 18일	현행(1980년대)

한여름이 되면 논과 밭의 작물도 순조롭게 자란다. 봄에 파종으로 바빴던 일손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된다. 음력 칠월 초이렛날에 칠석고사(七夕告祀)를 지냈다. 칠석맞이, 칠석제(七夕祭), 칠성제, 칠성고사라고도 한다.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가족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대상신이었다. 예산지역의 칠석제는 표6]과 같다.

표 6] 칠석제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고덕면 대천3리(별암리)	칠석제	7월 7일(오전 10시)	현행
고덕면 호음2리	칠석제(마을회관부근)	7월 7일(11시 이전)	현행
봉산면 봉림리	칠석제	7월 7일	현행
예산읍 간양3리	칠석제(마을 어귀의 참나무)	7월 7일	중단(1950년대)

예전에는 마을 공동샘이 마을의 중앙에 있었다. 대동샘은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었고 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유왕제의 장소이기도 했다.

예산의 샘제는 표7]과 같다.

표 7] 샘제(유왕제)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광시면 서초정2리	샘제	정월, 2월 중 택일	중단
대술면 마전2리(무성)	샘제(칠석제)	7월 7일	현행
대흥면 교촌1리(향교말)	유왕제(대흥향교 앞 샘)	1월 2일이나 3일	현행
봉산면 옥전리	유왕제와 샘굿 (이병숙씨 집앞 논 한켠)	정월 열나흘, 칠석	중단
삽교읍 두6리 (보안말)	유왕제→장군제	정월 열나흘	중단(1950)
삽교읍 안치리	유왕제(용왕제)	정월 열나흘	중단(1940년대)
삽교읍 평촌리	샘고사(유왕제,[용왕제])	정월 보름	중단(1950년대)
삽교읍 하포1리(막동)	샘제(우물고사)	7월 7일	1950년대 중단
신암면 계촌리	산신제→유왕제	정월초 택일(닷새 안으로)	현행
신암면 신종2리(원성골)	유왕제(우물제사) (회관 옆 공동우물)	정월 열나흘	현행
오가면 신석리(신대)	우물제	2월 1일	중단(1970년대)
오가면 신장리	샘제	정월 보름	중단(1980년대)
오가면 역탑1리(역말)	샘제(마을 중앙 샘)	정월 길일 택일	중단
응봉면 송석리(솔안말)	샘제	7월 7일	중단

거리에서 지내는 노제의 전통도 오래 되었고 또 광범위하게 지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전하는 노신제는 드물다. 노신제는 정월에 주로 지내며 선돌이 신체로 모셔진다. 예전에는 각각의 현(縣)마다 토신인 사(社)와 곡신인 직(稷)에게 제사 지내던 사직단(社稷壇)과 함께 고을을 지켜준다는 성황신에게 제사 지내던 성황단(城隍壇)이 있었고, 무주고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려단(厲壇)이 있었다. 무주고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던 관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 노신제였다. 예산지역의 노신제는 신양면 귀곡리에서 지내는 예가 보인다.

표 8] 기타 당제

마을명	제의명칭	제일(음력)	전승여부
봉산면 마교리	무주고혼제	10월 30일	중단
신암면 예림1리	당제	정월 길일 택일	현행
신양면 귀곡리 (엄나무골)	(마을어귀 언덕의 당집) 노신제	정월 보름	중단
오가면 내량2리 (안골)	(마을 어귀 선돌) 당제	정월 길일 택일	중단(1960년대)

예산의

Ⅱ. 산신제

산신제

1. 광시면 대리 당산제

1] 마을연혁

대리는 광시면의 동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청양군 운곡면, 서쪽으로 광시면 시목리와 가덕리, 남쪽으로 청양군 비봉면과 접해 있고 북쪽으로 미곡리·장신리·신흥리와 접하고 있다. 대리는 조선시대에 대흥군(大興郡) 이남면(二南面) 지역이었다. 1789년 쓰여진 <호구총수>와 1757년에 나온 <여지도서>에는 마을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중리(中里), 상양지리(上陽支里), 양지동(陽支洞), 구곡리(九谷里), 상시목리(上矢目里), 상삽리(祥霎里)를 병합하고, 대리(大里)라 하여 예산군 광시면에 편입되었다. 예부터 큰마을이 들어 앉을 곳이라 하여 대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대리의 동남쪽에 백월산(白月山)이 있다. 백월산은 광시면 대리와 청양군 운곡면 영양리와 모곡리에 걸쳐 있는 해발 418m의 산이다.

백월산의 남쪽으로 법산(法山)이 있는데 두 산 사이의 물이 서쪽으로 흘러 현재는 보강지를 채우며, 백월산의 북쪽 사면을 흘러내린 물은 서쪽으로 흘러 살목지로 모인다. 두 소류지의 물이 모여 마을을 관류하는 시목천이 되어 무한천으로 유입된다. 대리 서쪽으로는 소규모의 계곡 사이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전 지역은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대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쌍둥이저수지가 들어서면서 물걱정을 덜었다. 1975년 12월에 시작하여 1982년 12월에 준공한 저수지는 대리 뿐만 아니라 인근 5개 리 170여 정보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대리는 파평윤씨의 집성촌이다. 인근 시목리와 가덕리에 살고 있는 파평윤씨는 20여 세대이며 대동 동쪽 시루봉에 파평윤씨 참판공 윤탕(尹宕)의 묘소가 있다. 윤탕은 호조참판과 공조참의를 지낸 인물이다. 대리 마을에는 여러 그루의 느티나무 고목이 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수령이 600여 년으로 추정되는 나무를 마을에서 당나무로 정하고 제사를 지냈다. 마을 남쪽으로 예산황새공원이 조성되었다.

광시면 대리 지도

*지도출처: 충청남도 공간정보포털-이하 지도 같음

산제당 위치: 광시면 대리 산33-2

2] 백월산 정기가 어린 산제당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대리 남쪽 산에서 올리는 산신제는 그 연원을 알 수 없다. 오래전부터 전하여 왔을 것이라는 추측뿐이다. 대리에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 밤에 백월산 산제당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산제를 지냈으나 2000년 이후 정월 보름에 느티나무 고사만 지내고 있다. 예전에는 제수를 마련해서 지게로 지고 올라가 하루 저녁을 보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제장으로 삼은 바위 아래 임시 천막을 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하루 저녁을 산제당에서 보냈다는 마을 어른이 다수 생존해 계신다.

2) 위치

제장은 잿말 남동쪽 산 중턱으로 당집은 없고 돌로 제를 지내는 곳을 표시하여 놓았다. 제장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현재는 나무가 우거져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산제당은 백월산이 서쪽으로 흘러내려 잿말 남쪽에서 멈춘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곳을 산제당이라 한다.

광시면 대리 산신당

3) 신체

산제당이라고 하나 인공물로 지어진 당은 없고 다만 돌을 모아 표시를 했을 뿐이다. 바위 아래에 쇠로 만든 말을 봉안하였다고 하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다. 주변에는 오래된 참나무가 있어 주위의 작은 나무 군락과 확연히 구분된다. 산신제를 지내기 이전에 누군가가 막걸리를 놓고

기도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면 마을 주민들의 산제당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을 중앙에 있는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목신 고사를 지낸다. 2021년도에는 산신제를 생략하고 정월 보름에 느티나무 고사만 지냈다. 느티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로 수령이 368년으로 되어 있다. 대리에서도 장승제가 있었다고 한다. 마음 초입에 해마다 장승을 세우면서 장승제를 지냈다고 하나 현재 장승제는 전승되지 않고있다. 산신제와 장승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마을 주민 중에서 제관, 축관, 집문, 고양주를 뽑았다. 제관은 제를 주관하고, 축관(祝官)은 축문을 읽는 역할을 했다. 집문과 고양주는 제물을 담당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진행했다. 산신제를 지낼 적에는 마을 주민 20여 명이 동행하여 함께 제를 지냈다고 한다.

제관에게 여러 가지 금기를 요구했다. 제를 지내기 보름전부터 목욕재계를 해야 했고, 비린 음식류를 먹어도 안 되었으며 심지어 부부간 합방도 금기시했다. 더군다나 손에 피를 보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았다. 제관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금기시 하는 것이 있었다.

마을에 초상이 있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일정을 조정했다. 그 사이에 또 초상이 있으면 다시 일정을 잡게 되니 제관으로 정해진 주민은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에 제관을 맡았기 때문에 고생을 감수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산신제가 연기될 것을 염려하여 숨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제를 지낸 다음에 알려지면 더 이상 문책은 면했다고 하니 다른 마을에 비해 금기가 강했던 마을이라 하겠다.

2) 제비

제수 준비를 위한 경비는 각 호마다 얼마씩 추렴하였으며 현재는 마음기금과 군 보조금으로 지내고 있다.

3) 제수와 진설

제물을 준비하는 집문과 고양주의 집 대문에도 금줄을 쳤다. 대문 앞에 황토를 놓아 액막이를 하기도 했다. 제물로는 소머리, 메, 백무리, 삼색실과, 북어 등을 마련하였다.

4) 산신제와 느티나무 고사 과정

3일 전에 마을 공동샘 주변을 청소하고 새 물을 받기 위해 물을 퍼냈다. 산제당과 느티나무, 장승 주변도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마을 입구에 금줄을 달아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산제일 전날, 어둑해 지면 제관과 마을 주민들이 잿말 남쪽 산제당으로 올라갔다. 우선 바위 앞에 화톳불을 피웠다. 정월달이기 때문에 산 위의 기온은 몹시 추웠다. 화톳불 화기에 의지하여 하루 저녁을 보냈던 것이다. 바위에 종이를 깔고 진설을 했다. 제물로는 소머리, 메, 백무리, 삼색실과, 북어 등이었다. 예전에는 산제장에서 직접 메를 지어서 올렸다. 술을 올리지 않고 감주를 올렸다고 한다.

느티나무와 제사 준비모습

산제를 지내던 장소(위에서 본 모습)

산신제를 지내던 장소

독축

제관과 마을 주민들

진설이 끝나면 제관이 잔을 올린다. 이어 축관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는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의 소지를 한 장씩 다 올렸다. 다음에는 마을로 내려와 느티나무 고사를 지냈다. 진설은 장승제와 동일하게 했다. 느티나무제를 지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동내 대동샘에 가서 샘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때는 제수는 차리지 않고 소지만 올렸다.

대리의 동제는 산신제, 장승제, 느티나무고사, 샘제 순으로 진행되며 해가 뜨기 전에 마쳤다고 한다. 2021년도에는 느티나무고사만 지냈다. 예전에는 인근 마을인 시목리와 함께 지냈다고 한다. 마을에서 동제가 중단되자 다른 마을 주민도 동참할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암소머리를 삶아서 올렸다고 한다.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도 동참했던 대리의 동제는 엄격했던 금기만큼이나 큰 여운을 남기고 있다.

5) 뒷풀이

장승제를 지낼 때는 마을 주민을 위한 소지뿐만 아니라 광시면의 각 마을을 위해 소지를 올렸다고 한다. 산신제나 느티나무 고사 때는 주로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렸다. 장승제 만큼은 광시면 일원의 각 마을을 위하는 소지를 올렸던 것이다.

'우리'라는 넉넉한 마음씀이 깃들어 있었던 것이 대리 동제의 의미였다. 산신제에서 장승제로, 장승제서 느티나무 고사로 이동할 때에는 언제나 풍물을 앞세웠다. 이후 음식을 서로 나누며 한 해의 시작에 임해서 흉액을 막고 복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마을에서 본 산제장

산제장에서 기도한 모습

[3] 동제 이야기

조선조 때에는 마을이 깊은 산중이어서 나무가 우거져 있었고 큰 짐승도 많았다고 한다. 한때는 호랑이가 많이 살아서 마을에 자주 내려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한다. 한 노인의 길몽에 따라 산신령을 모시기로 하고 흰 말과 제단을 만들어 매 년 산신제를 지낸 후 마을이 평안을 찾았다고 한다.

[자료] 선행연구자료 2)

주소: 광시면 대리 [중지, 70년 새마을 운동 때]		
당이름		산제당 (삼신당, 고목, 장승)
당위치		백월산(283m)아래 국사봉(159.7m)산록(145.9m)
당집	돌무더기	없음
	제단	1m이내의 돌담, 석단
	신목	참나무, 소나무
제신	신격	호랑이 산신
	효험	마을 수호
제관	수효	3
	명칭	고양주, 제관, 축관
	선출방법	생기복덕 닿는 사람 선출
	기타참석자	농악자4명, 제물운반 7명 등
제의	제전(금기)	2주간 목욕, 금부녀, 금부정
	제의순차	산제당→삼신당제→장승제→정주나무제→샘제
	제의진행	유교제의(헌작-독축-소지)
	제후	음복, 동회
제일 및 시간	횟수	1
	제일	음 정월 14~15일
	시간	밤 8시~다음날 3시
제비	제비마련 방법	산제답 7두락
	비용	백미 5가마
제물		술, 백병, 소머리, 과일, 북어, 메
선행연구자료		한국의 마을제당(1998. 221쪽)

2)이인화,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 민속원, 2006, p.462 예산군 지역 마을제당 유형분류 표임

산신제

2. 광시면 운산1리 산신제

1] 마을연혁

운산리는 광시면의 남서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광시리와 하장대리가 접해 있고, 서쪽으로 홍성군 홍동면 대양리와 장곡면 월계리, 남쪽으로 광시면 노전리, 그리고 북쪽으로 광시면 광시리 및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흥군 일남면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산직리(山直里)와 동달리(東達里)를 병합하고, 운산리라 하여 예산군 광시면에 편입되었다. '구르미' 또는 운산(雲山)으로 불리운다.

서부지역과 북부지역이 봉수산 내맥으로 200여m 이하의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중부 및 남부에 100m 내외의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고, 그 사이에 계곡 사이로 비교적 규모가 있는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논밭이 있다. 행정리는 운산1·2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동달, 서달, 저드리 등이 있다. 마을 접근 도로는 국도 29호선인 충절로가 운산리의 남동부 경계에서 동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고, 기타 도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지나면서 운산리의 서부와 남부에 개설되어 있는데, 국도 29호선과 기타 도로는 운산리의 남동부에서 연결된다.

광시면 운산리 지도

산제당 위치 : 광시면 운산리 산43-4 임야

2] 전통을 이어온 산신제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운산리 큰말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초순에 길일을 택하여 산신제를 지냈다. 2021년에는 음력 1월 3일(양력 2월 14일)에 산제를 지냈다. 운산리 산신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 위치

산제당은 운산리 큰말 뒷산 소쟁이산 중턱에 있다. 산제당은 당집과 산제를 지내는 장소, 그리고 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집은 1990년대 초에 마을에서 지은 자그마한 집이다. 당집은 동향으로 지어 졌으며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다. 이곳에 제기를 보관하고 또 제를 지낼 때 제수를 준비한다. 당집 뒤쪽으로 비탈진 곳을 오르면 여러 개의 큰 바위가 있다. 이곳에 제단을 마련하고 제를 지낸다.

제단으로 오르기 전 당집의 우측에 향나무가 있고 향나무 아래에 샘이 있었으나 현재는 메워지고 조금 아래쪽에 관을 박아 물을 받아 놓고 제를 올릴 때 사용한다. 당집은 제를 지내기 전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제를 지낸 후 음복을 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제단으로 오르는 곳은 가파르다. 잡목이 제거 되어 있어 아래에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바위가 눈에 들어온다. 당앞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마을로 들어오는 동구며 산과 산 사이에 펼쳐진 논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운산리 당집

운산리 당집에서 본 마을

운산리 자연제단에서 본 당집과 마을

3) 신체

바위가 있는 제단은 특별한 신체는 없다. 다만 제를 지낼 때는 신위를 종이에 써서 붙여 놓고 제사를 올린다.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의 동, 서, 남, 북, 중앙의 다섯 방위를 돌며 오방제도 함께 지냈다. 물론 신체는 없지만 오방신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낸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택일을 하면서 그 해에 산제를 주관할 제관을 뽑는다. 제관은 마을의 연장자 중에서 생기, 북덕, 천의 등을 보아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제관이 정해지면 제관 집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는 표지로 대문 앞에 액맥이 황토 세 무더기를 양쪽에 두 줄로 놓는다. 황토를 밟지 않도록 집안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각별히 취급한다. 제관은 외부 출입을 금하고 몸을 정갈히 하기 위해 매일 찬물로 목욕재계하였다. 한 해 동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제관으로서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다.

2) 제비

제비는 산제당 앞에 있는 산제답을 지어 마련하였다. 마을 주민이 산제답을 부치고 도조를 내어 제수를 준비했다. 도조뿐만 아니라 가구마다 갹출하기도 하였다. 출향한 사람들도 제비를 보내왔다. 주민들은 복을 많이 받으려고 미리부터 준비하였다가 흔쾌히 제비를 냈다. 현재는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마을 운영자금으로 산제를 지낸다.

3) 제수와 진설

제수는 가까운 면소재지에서 준비를 하는데 좋은 재료를 구입하고 가격을 흥정하지 않는다. 제물은 통돼지, 떡, 식혜, 포, 메, 탕, 두부, 삼색과실 등을 차리며, 유교식으로 지낸다. 예전에는 소를 잡아서 지내기도 했다고 전하나 현재는 고사용 돼지머리를 사용한다.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서 산제를 지낼 때에도 산제당 앞 샘에서는 일절 잡지 않았다.

샘물은 떡을 찐다거나 메를 지을 때만 사용했다. 이제는 떡을 찌는 것이 번거로워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메만 지어서 올린다. 산제당과 오방신에 대한 제수를 각각 준비했다. 최근에는 산제당에서만 지내고 오방신은 당집 앞에서 제수를 진설하고 유교식으로 지낸다. 통돼지나 소를 잡는 경우에는 머리는 산제를 지낼 때 올리고 네 다리는 사방에, 그리고 갈비는 중앙에서 지낼 때 올렸다.

메짓는 솥

메짓기

4) 제의과정

정월초가 되면 산제 택일을 했다. 마을 주민 중에 학식이 있는 분이나 지관일을 보는 사람이 택일을 했었다. 이제는 정월 초3일로 고정되다시피 하여 특별히 택일은 고민하지 않는다. 산제 당일이 되면 아침부터 제단과 당집 주변을 청소한다. 예전에는 목욕재계하고 정갈하게 제물을 준비했다. 돼지를 올리는 경우는 할 일이 더 많아 일찍부터 준비했다. 대략 정오경에 제를 지낼 준비가 끝났다. 해가 진 후에 산제를 지내기 때문에 오후는 차분히 시간을 보내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을 주민들이 당집으로 모이고 제관 이하 임원들이 제단으로 올라간다. '산신지위(山神之位)'를 붙인 바위 앞 석상에 진설을 한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못한다.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후 잠시 기다렸다가 당집으로 내려온다. 다시 제수를 진설하고 당집 앞에서 오방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제관이 먼저 잔을 올리고 주민 중에서 잔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잔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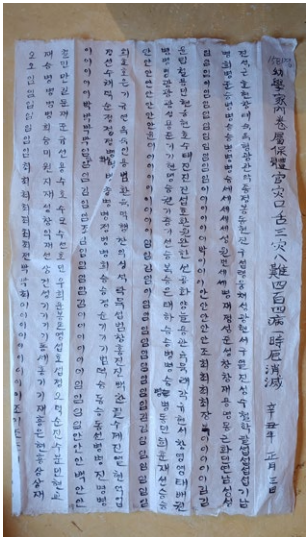
자연제단

자연제단 진설

자연제단 독축

자연제단에서 본 당집

제 지내러 모인 주민들



소지명단

소지올리기

소지

여러 사람이 잔을 올린 후에 철상을 하고 마을 전체 주민의 소지를 올린다. 미리 준비한 명단을 청이 좋은 주민이 큰 소리로 호명한다. 호명된 소지자 명단에 따라 그 사람의 소지종이를 가져다가 해당인의 이름을 밝히고 한 해의 안녕을 축원한다. 당집 앞에 모닥불(화톳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주위에서 소지를 올리며 축원한다. 여러 사람이 큰 소리로 마을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소리가 장관이다.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제비를 보내 온 출향 주민까지 소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소지를 올린 후 당집 안과 당집 앞에서 삼삼오오 음복을 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나눈다.

예전에는 산신제를 지내고 마을로 내려와 오방제를 지냈다. 오방제를 지내기 위해 하산하는 것을 신호로 각 가정에서 장독대에 떡을 놓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것을 맞시루, 또는 산시루, 산신시루라고 했다. 짚을 열십자 모양으로 놓고 그 위에 떡 시루를 놓았다. 주로 백무리 떡을 지었는데 쌀을 담은 큰 접시에 초를 꼽아 시루 중앙에 놓았다. 이것을 '불밝이 쌀'이라고 한다. 떡 시루가 준비되면 청수 한 그릇을 준비한다. 일반적으로 장독대에 토지신이 머문다고 믿었다. 한 가정의 화복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우리 음식문화에서 중요한 장류를 오래 보관하는 곳으로 장독대는 울안에서도 해가 잘 드는 곳에 마련한다. 장독대는 집에서 가장 정갈한 곳이기도 하고 외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오방제

오방지위 지방

오방제 제단

오방지신 신주

농경사회에서 토지신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마을을 수호해주는 산신은 산신제로 위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토지신은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서 위한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축원하는 동안에 오방제도 지냈다. 오방제는 동, 서, 남, 북, 중앙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산신제를 지낸 후 조용히 제수를 지게에 지고 이동했다. 제장에 도착하면 제수를 진설하고 산신제와 동일하게 제를 지냈다.

오방 방위에 해당하는 '동방청제지신(東方青帝之神)', '서방백제지신(西方白帝之神)', '남방적제지신(南方赤帝之神)', '북방흑제지신(北方黑帝之神)', '중앙

황제지신(中央皇帝之神)'이 적힌 오방기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 얼마 전까지 다섯 군데에서 지내던 것을 중앙 한 군데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당집 앞에서 지내고 모두 생략했다.

5) 뒷풀이

산신제와 오방제를 지내고 제관과 주민들은 다시 당집으로 모여 산신제의 비용 등 동제에 대한 제반 경과를 보고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었다. 예전에는 제의 비용을 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나누면서 밤을 새우고 아침에 마을로 내려왔다. 1박 2일의 동제는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으며 마을 주민이 단지 마을의 구성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 지낸 후

축문쓰기

[3] 동제 이야기

일제강점기 때에 구미리 임병구 씨의 부친은 산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 면 소재지로 끌려갔다. 일본 경찰이 총을 머리에 겨누고 발포를 했다. 그러나 총은 발사되지 않았고 총부리가 부러져 나갔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던 상황이었다.

놀란 일본 경찰이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산신을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산신을 두려워한 일본인이 살려주었다는 것이다. 나라를 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산신의 영험함과 음덕을 생각하게 되어 산제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왔다고 한다.

[자료] 선행연구자료 3)

주소: 광시면 운산리 [현행, 1887년부터]		
당이름		산제당, 장승
당위치		소쟁이산(185m) 중턱
당집	돌무더기	당집2칸+자연제당
	제단	당집-휴식공간, 자연제당-皇天后土名山大川之神(황천후토산태천지신), 바위제단
	신목	소나무
제신	신격	산신, 오방지신
	효험	마을 평안과 풍년
제관	수효	1
	명칭	제관
	선출방법	생기복덕이 닿고 부정 없는자
	기타참석자	동네 사람 모두
제의	제전(금기)	제당·산제샘·통돼지 잡는 샘 청소, 목욕재계, 외출금지
	제의순차	산신→오방제(동-서-남-북-중앙)→맞시루
	제의진행	유교식 제의, 산신축, 소지
	제후	음복, 회의, 놀이 봉송
제일 및 시간	횟수	1
	제일	정초 택일
	시간	초저녁 19시경
제비	제비마련 방법	산제답 도지, 거출
	비용	불명
제물		통돼지(통수), 백병, 삼색실과, 식혜, 포, 메, 탕, 두부, 소지
선행연구자료		최운식, <예산군지>, 2001, 387~389쪽.

3)이인화,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 민속원, 2006, p.462 예산군 지역 마을제당 유형분류 표임

산신제

3. 대흥면 갈신1리 산신제

1] 마을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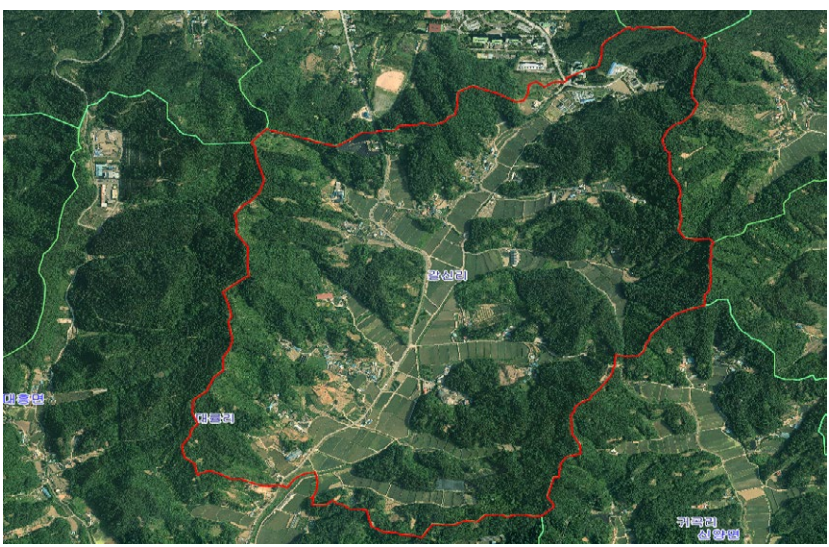
갈신리는 1789년에 작성된 <호구총수>에 대흥군 근동면(近東面) 상갈신리(上葛申里), 하갈신리(下葛申里)로 기록되었다. 산진제를 지내는 마을은 하갈신리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갈신리(上葛申里)와 하갈신리(下葛申里)를 병합하여 갈신리라 하고, 상갈신리를 갈신2리, 하갈신리를 갈신1리로 표기하였다.

대흥면의 북동쪽에 위치한 갈신리는 북쪽으로는 형제고개로를 통해 예산읍과 통하며 동쪽으로 대술면 시산리·산정리 및 신양면 귀곡리, 서쪽으로 대률리 안송림, 남쪽으로 대률리 및 남동쪽으로 신양면 귀곡리와 접하고 있다. 예산읍에서 형제고개[4]를 넘어 형제고개로를 따라 대률리 쪽으로 약 4km 진행하면 오른쪽으로 금봉산의 아래에 하갈신리가 자리하고 있다.

하갈신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서쪽과 동쪽으로 탄방천을 사이에 두고 100m 내외의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탄방천의 주변으로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조선조 때 그려진 고지도 등에는 형제현(兄弟峴)으로 표기되었음.

갈신1리 하갈신은 매년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산신제와 장승제를 지내왔다. 제의는 상당·중당·하당 세 곳에서 지냈다. 상당인 마을 뒷산 금봉산에서 산신령에게 무병장수·안가 태평과 풍년을 기원하였고, 중당에서는 서방 수위신에게 풍재·수재·화재를 막아 달라고 축원하였다. 하당은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으로 마을로 들어오는 악귀와 재앙을 막기 위해 제사를 올렸다. 현재는 상·중·하당 세 곳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더라도 상당에서 지내는 제사만큼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입구 길가에 팽나무 고목이 한 그루 있었고 이곳에 석장승과 솟대를 세웠었다. 1992년 6월경 팽나무가 고사하자 베어내고 1993년 장승제를 지내면서 마을 회관 옆으로 장승을 옮겼다.



대흥면 갈신리 지도

산제당 위치: 갈신리 산 19-7

2] 상당·중당·하당에서 지내던 동제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갈신리의 산신제와 장승제가 시작된 연원을 밝히기는 어렵다. 동제를 지내는 마을마다 그 연원을 밝혀놓은 사료가 없는 것은 대동소이하다. 갈신리의 경우 산제당의 상량문에 崇禎元後五大韓光武七年癸卯重建(숭정원후오대한광무칠년계묘중건)이라는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다.

숭정은 명나라 의종(毅宗)대 연호로 1628년부터 사용했다. 5년 뒤라는 기록으로 보면 조선 인조 10년인 1632년이다. 이때부터 산제를 지내왔다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뒤의 대한 광무 7년은 1903년 계묘년이다. 시간적 차이가 심한 것을 보면 중건연도인 1903년 이전에도 여러 번의 중건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산재당 표석

2007년에 세운 산제당 표석을 보면 1632년 조선 인조 때 산제당이 건립이 되었고, 1903년 광무 7년 고종년간에 중건이 되었으며 1989년에 재건, 2006년 12월에 보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래는 초가집이었던 것을 1989년 재건 때 기와집으로 바꾸었다. 산제당의 역사를 보면 오래전에 산제당이 절골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산제당이 지어진 시기부터 산제를 지냈다는 확증은 어렵다. 산제당 없이도 산제를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산제당 없이 그 전부터 산제를 지내오다가 1632년경에 산제당을 짓고 산제를 지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산제당 표석으로 산제의 유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금봉산(金奉山) 중턱에 위치한 山祭堂은 370여 년 전 崇禎元後5년 朝鮮仁祖大王 10년 때부터 마을에서 山祭를 지내왔다. 祭祀는 五方神의 由來로 上堂, 中堂, 下堂의 삼당을 지내며 上堂은 山祭堂에서 中堂은 본동의 西方 堂山에서 下堂은 東南方으로 동리 入口에서 將丞祭를 지내고 있다.
유래로 只今의 山祭堂골 일명 절골(寺刹)로 불리고 있다. 이 절골에서 大虎가 내려와 牛馬殺傷과 원인 모를 病까지 퍼져 死亡者가 많이 발생하여 마을에서 山祭堂을 建立하여 洞民의 安寧祈願과 農事大豊을 祈願하는 山神祭와 將丞祭를 지내며 每年 陰 正月 보름날로 지정하여 部落 鄕土 文化事業 保全으로 行事하고 있다. <산제당표석문>

2) 위치

상당인 산제당은 마을의 서쪽에 위치한 금봉산에서 있다. 고지도에 금봉산은 보이지 않으나 <동여도>에 가차산(加次山)과 송림산(松林山)이 남쪽과 서쪽에 표기되어 있다. <1872년 지방지도> 대흥현 지도에는 송림사(松林寺)와 감탕사(甘湯寺) 건물이 확연하게 그려져 있다. 금봉산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송림사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감탕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금봉산 동쪽으로도 절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산제당과 표석

상당샘으로 불리는 약수터

산제당은 금봉산 동쪽 골짜기 7부능선 쯤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서 보면 골짜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골짜기를 들어가면 가파르고 깊다. 이곳을 예전부터 절골이라고 불렀다. 절이 있어 생긴 지명인데 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

산신당 정면의 산신도

산신당 측면의 산신도

절골에서 대호가 내려왔다는 전설이 흥미롭다. 산세가 지금과는 사정이 달랐을 것이고 실제 호랑이가 출몰했을 수도 있다. 산신으로 여겼던 호랑이의 출몰은 상서로운 일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 호랑이가 출몰하여 가축이나 사람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갈신리에도 절골 산제당 계곡에 매어 둔 소나 말이 호랑이에게 화를 당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한 원인 모를 병으로 주민들이 병사하자 이러한 액을 막고자 산신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중당은 마을 중앙에 있고, 하당은 마음 입구에 장승과 솟대가 있는 곳이다.

갈신리 상당과 중당

3) 신체

상당은 기와로 되어 있는 산제당 한 채가 있고, 산제당 안에는 정면과 우측 벽면에 각각 산신도를 모셨다. 산제당 우측에는 산신제 때 쓰는 샘이 있다. 중당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낮은 구릉에 있다. 이곳을 마을 주민들은 당산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큰 소나무 서너 그루가 서 있었으나 오래전에 고사하고 현재는 작은 나무가 몇 그루 남아 있다. 이곳에서 칠성신과 삼신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낸다. 북두칠성(北斗七星)을 의미하는 칠성신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신앙이다. 북두칠성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별로 방위뿐 아니라 위치의 변화로 각 계절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북두칠성에 있는 삼신 할머니에게 명줄을 받아 태어난다고 믿었고 삶의 길흉과 화복은 모두 북두칠성이 주관한다고 믿었다. 중당에서 칠성신과 삼신을 위하는 제사는 오래된 신앙의 원형이라 하겠다. 중당에는 신체(神體)가 없다. 하당은 마을의 가장 아래쪽으로 마을 초입이다. 이곳에 장승과 솟대를 세워 자연스럽게 제당이 표시되었다. 또한 마을 입구에 오래된 팽나무가 있었다. 고목이 말라 죽으면서 장승과 솟대는 마을 회관 옆으로 이전되었다. 하당에서 장승제를 지냈다.

하당에는 소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장승과 솟대가 있었다. 나무로 만들었던 장승을 광복 이후 '東方靑東帝大將軍'(동방청동제대장군)이라 새긴 돌벅수로 바꾸었다가 1992년에 다시 나무로 바꾸어 세웠다. 나무 장승이 오래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2010년 화강암을 사용하여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쌍으로 세우는 것이 보통인데 갈신리 장승은

남신(男神)만 세웠다. 솟대도 여러 개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만 세우고, 봉황도 세 마리를 만들에 세우는 데 이곳 갈신리에서는 하나만 크게 만들어 세운다. 봉황의 방향도 북향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갈신리는 동남향으로 세우는 독특한 면이 있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제관은 세 명이었다. 제관이 전체 행사를 주관했다. 그리고 축관 한 명, 도화주[5] 한 명을 선정하였는데, 도화주는 행사에 필요한 제물을 담당한다. 제관은 생기복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개 마을에서 연장자가 맡았다. 축관과 도화주는 6,70대에서 주로 맡았다.

예전에는 짐꾼, 즉 심부름하는 사람도 뽑았다. 제관은 제를 지내기 삼일 전부터 집안에 머무르며 외출은 금했다. 제관의 집 앞에는 금줄과 황토를 펴 놓아 외부인 출입을 금했다. 제물을 준비하는 마을 회관에도 금줄과 황토로 출입을 못하게 표시를 해 놓는다. 동제를 지내는 기간에는 도축을 금했다.

2) 제비

예전에는 각호 마다 쌀 1~2되씩 갹출하였다. 현재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낸다. 예전에는 '대동연반계'를 중심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대동연반계'는 마을의 초상, 공동작업, 마을의 제반 대소사를 주관하였다. 산신제가 마을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제비 마련 등 동제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했다.

3) 제수와 진설

상당에서의 산제는 백설기, 메, 찹쌀떡, 쇠고기산적, 두부탕, 삼색실과, 청수 등이며 돼지머리를 올리고 지냈다. 중당의 칠성제와 삼신제는 팥시루떡, 포, 삼색실과, 청수를 올린다. 하당의 경우는 중당과 동일하게 올린다.

4) 산신제와 장승제 과정

제의 당일이나 전날부터 풍물놀이로 산신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개 제의 당일 일찍 산제당 청소를 한다. 산제당 근처의 '상당샘'(상당댐)은 전날 깨끗하게 퍼내고 새물을 받는다. 산제당과 주변 정리가 끝나면 중당, 하당으로 자리를 옮겨 청소를 한다. 산신제와 장승제를 같이 행하기 때문에 장승을 준비해야 한다. 제의 전날 마을 북쪽 산에서 장승목을 지정하고 약간의 주과와 포로 제사를 지내고 한지로 표시를 한 후 내려왔다가 행사 당일 아침에 장승목을 베어다가 장승을 만들었다. 장승 제작은 마을주민이 했다. 소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머리 부분을 음각으로 얼굴 형태를 만들었다. 장승제작과 함께 솟대도 만들었다.

예전에는 저녁 일곱 시에서 여덟 시 사이에 상당제를 시작하여 자정 정도에 끝났다. 현재는 당일 오전 10시에 제를 올린다. 제관을 위시한 축관, 도화주는 제물을 준비하여 상당인 산제당에 제물을 진설한다. 돼지머리는 산제당에서만 올린다. 축관이 축문을 읽고 나서 마을 주민의 평안과 한 해 농사의 대풍을 기원하며, 개인 소지와 동민 소지를 올린다. 예전에는 오전 한 시에서 두 시 사이에 제물을 준비하여 중당에 가서 중당제를 지내고, 오전 여섯 시에서 일곱 시 사이가 되면 하당으로 내려와 장승제를 지냈다.

5) 도화주: 도(都)의 예는 도편수(都邊首)에서 볼 수 있다. 도변수는 도편수(都片手)로 부른다. 건축공사를 담당했던 기술자의 호칭으로 각 분야의 책임자를 부르던 명칭이다. 화주(化主)는 농악에서 전체의 총무나 재무를 보는 사람을 말하며, 불교에서는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으로 쓰이는 용어다. 도화주는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무교적 명칭화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월 보름 하루에 상당, 중당, 하당 제사를 지낸다. 마을 주민의 무병장수와 한해 농사의 대풍을 기원하는 축원과 소지를 올린다. 제의 절차는 유교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풍물놀이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밤새워 상당, 중당, 하당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 지냄으로써 마을의 안녕이 보장되었다. 이제는 마을 주민들의 고령화로 동제의 모습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갈신리의 동제는 상당에서 산신을 신체로 하여 주민의 무병장수와 안가태평, 농사대풍을 기원하고, 중당인 당산에서 풍재, 수재, 화재의 재난에서 마을을 지켜 달라는 축원을 하고, 하당에선 장승을 신체로 하여 무병장수와 농사대풍 뿐만 아니라 모든 재액을 막기를 기원하는 특징이 있다. 도화주가 산신제에서 메를 세 번 짓는 것과 상, 중, 하로 나누어 제를 지내는 것은 다분히 3이라는 숫자의 '많다'라는 개념을 함의하는 예라 하겠다.

5) 뒷풀이

상당에 산제를 지내러 올라갈 때에 농악이 수반되었다. 마을 회관에서 제당에 오르는 동안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쓴 농기를 앞세웠다. 징, 장구, 꽹과리를 치면서 흥겹게 올라갔다. 상당에서 하당까지 모든 제사가 끝나면 농악을 울리며 함께 즐겼다. 신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으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셈이다. 이제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들이 그 바람을 들어주면 된다.

[3] 동제 이야기

갈신1리 산신제는 다른 지역의 동제보다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많은 사람

들의 관심을 끌었다. 1990년대에 민속학자 고 심우성 선생이 산신제의 전과정을 채록하기도 하였다. 장승은 동쪽을 향해 세워져 있다. 그리고 남성을 상징하는 장승 하나만 세웠다. 마을 앞 불당골이라는 골짜기에 여성을 상징하는 바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자료] 선행연구자료 6)

주소: 대흥면 갈신리 큰말 [현행, 1630년부터]		
당이름		산제당, 칠성당, 장승, 솟대
당위치		상당-마을 뒷산인 금봉산 중턱(175m), 중당-칠성(125m), 하당(60m)
당집	돌무더기	상당-기와집 1칸(1987), 산신도 2장
	제단	중당-동방청제대장군(장승)
	신목	신목-상·중·하당 모두 없음
제신	신격	산신령, 수신, 장승, 솟대
	효험	상당-무병장수, 안가태평, 중당-풍농
제관	수효	3
	명칭	도화, 축관
	선출방법	생기복덕이 있는 자
	기타참석자	동리사람
제의	제전(금기)	3일 목욕재계, 부정보지 않기, 제당청소, 출입금지, 금줄, 황토놓기
	제의순차	상당(산제당)→중당(칠성당)→하당(장승과 솟대)
	제의진행	유교식(메를 세 차례 지어 올림)
	제후	음복, 회의, 놀이
제일 및 시간	횟수	1
	제일	정초 택일
	시간	상당:술시~자정, 중당:1~2시, 하당:6~7시
제비	제비마련 방법	추렴, 군의 지원(1996년부터)
	비용	불명
제물		대추, 밤, 감, 배, 조과 포, 메, 국, 탕, 떡, 잔반, 시저, 좌우촛대, 소지
선행연구자료		심우성, <갈신리장승제>(예산문화원1993년, 1~39쪽. 최운식, <예산군지>, 2001, 384~387쪽

6)이인화,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 민속원, 2006, p.462 예산군 지역 마을제당 유형분류 표임

산신제

4. 덕산면 광천1리 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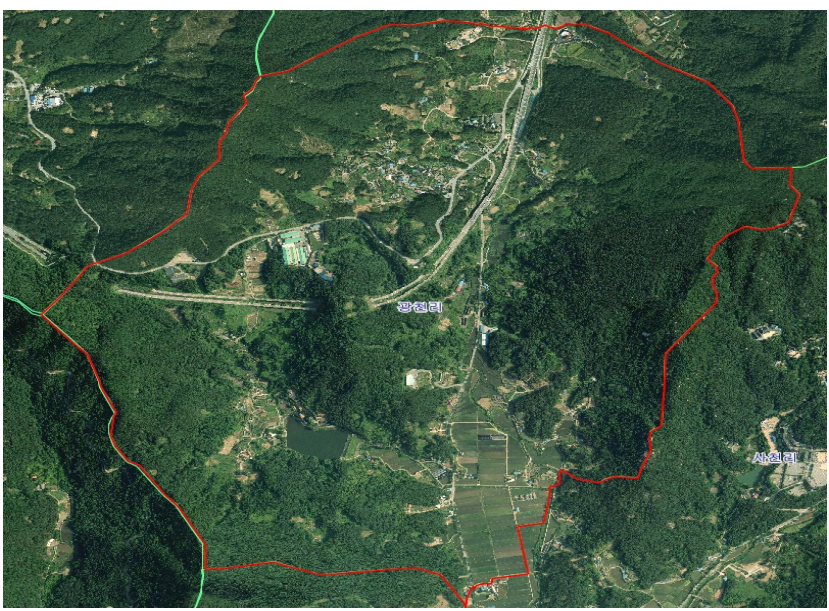
1] 마을연혁

광천리는 덕산면의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 덕산면 사천리, 서쪽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와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외라리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 덕산면 대치리와 접하고 있다. 백제 때는 마시산군(馬尸山郡) 지역이었고, 신라 때는 이산군(伊山郡)에 속했으며 고려 때는 덕풍현(德豐縣)이었다. 조선 초에는 덕산현(德山縣)이라 하였고, 조선 후기에 덕산군(德山郡) 나박소면(羅朴所面) 관할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조교촌(鳥橋村), 광돌리(廣乭里), 사천리(斜川里)의 일부와 현내면 대티리의 일부를 병합하고, 광천리라 하여 예산군 덕산면에 편입되었다. 광천1, 2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마을로는 광천리에서 가장 큰 나본들과 동막골, 동산말, 동아리, 벌뜸, 기양골, 위뜸, 음달뜸, 작댓벌, 작원벌, 홍암 등이 있다. 광천리의 북동부를 제외하고 마을 전 지역이 해발고도 100~400여m의 구릉지이다. 마을의 앞 동쪽에는 수덕산(修德山)[495.2m]이 있고, 마을의 뒤쪽인 서쪽으로는 가야산의 지맥인 뒷산[449.1m]이 웅장하게 서 있다.

마을은 두 산의 계곡간에 자리하고 있으며 광천1리는 위쪽에 있고 2리는 남쪽의 저곡부에 자리하였다.

국도45호선인 윤봉길로가 광천1리를 관통하여 덕산과 해미를 연결하고 있다. 예전에는 대치리에서 한치를 넘어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로 직접 넘어 갔었다. 이후 광천1리 앞으로 도로(남은들로, 큰길로)를 내어 소통하다가 현재는 국도 45호선 윤봉길로를 새로 내어 소통하고 있다. 논농사는 광천2리의 광천 저수지 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광천1리는 주로 밭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유적과 유물로는 광천리 고분군, 광천리 사지, 남은들상여[국가민속문화재 제31호, 마을에는 복제품이 있음] 등이 있다.



덕산면 광천리

산제당위치: 덕산면 광천리 산99

2] 광천리 상황산신 호랑이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광천리 산신제는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산신제를 언제부터 지내왔는지는 기록이 없어 상고하기 어렵다. 매년 음력 정월 초에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냈다. 2021년에는 1월 5일(양력 2월 16일) 오전 9시에 지냈다.

2) 위치

광천1리 뒷산에 산제당이 있다. 지도상에는 뒷산이라 명시되었으나 마을에서는 이 산을 상황산이라고 한다. 상황산 중턱에 암벽이 있고, 그곳에 호랑이 굴이

있다고 한다. 그곳까지 가기가 어려워 편의상 암벽 아래에 산제당을 지었다. 산제당은 부엌이 딸린 2칸 규모의 집으로 이곳에서 산제일 전날 제관들이 올라와 밥을 지어 먹으면서 하룻밤을 지내며 정성을 드렸다고 한다. 제당 아래쪽에 작은 샘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을 이용해 취사를 하고, 제관들이 목욕재계를 하였다고 한다. 제단은 암벽 아래에 돌로 쌓아서 만들었다. 바위가 남서 방향으로 되어 있어 제단은 동북 방향으로 차려진다.

당집과 바위 제단

당집과 바위

당집 아래 옹달샘

옹달샘에서 본 마을 모습

당집내부

당집앞 돌절구

3) 신체

마을에서 모시는 신체는 호랑이로 상황산신이라 부른다. 호랑이가 살았다는 굴이 암벽에 있었다고 전한다. 산제당에는 산신도나 다른 신체는 없다. 다만 제관들이 하루 저녁 보내며 정성을 드리는 장소로 활용되었다. 현재는 제기를 보관하고 있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섣달 그믐에 대동회의(진흥회)에서 그해 운이 닿는 사람을 제관으로 선출했다. 제관을 도와 제물 등을 준비하는 사람도 네 명이나 다섯 명 정도 뽑았다. 제관으로 뽑히면 부정 타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였다. 제관이 선출된 후에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제일을 미루고, 부정이 가셔야 제를 지낼 수

있었다. 제관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정한 것을 보아서도 안 되었지만 제일에 산제당에 올라가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고통이었다. 한겨울에 옹달샘 물로 목욕재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마을을 위해 일을 한다는 희생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한다. 어려움을 잘 알기에 꺼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나 제관으로 뽑히면 정성을 다해 산제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재배

제관들

환복

신위붙이는 모습

진설된 제단

2) 제비

제비는 마을 기금으로 충당했다. 2021년도에는 군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제를 지냈다.

3) 제수와 진설

제수는 제관들이 장에서 구입했다. 제수를 구입할 때도 흥정을 하지 않았다. 제수에 쓸 물건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자세히 살피고 구입을 했다.

산제 준비

산신제 후 마을회관

금줄치기

4) 산신제 진행 과정

제사를 지내기 사나흘 전에는 제관들이 산제당 부근에 금줄을 쳐서 산신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2021년에는 제의 직전에 금줄을 쳤다. 금줄이 쳐지면 제관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들도 부정하지 않도록 몸가짐을 더욱 조심히 하였다고 한다. 제일 저녁에 제물을 마련해서 산제당에 올라가 자정 무렵 자시(子時)에 산신제를 지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산제당에서 지내고 내려왔다고 하는데 차츰 시간을 앞당겨 오후 5~6시경에 지내던 것이 이제는 오전으로 시간이 바뀌었다. 산신제는

유교식으로 지낸다. 제단 앞 바위에 '상황산신지위'라는 종이에 쓴 위패를 붙여 놓고 지낸다. 제관이 헌작하고 재배, 독축, 소지 올리기 순으로 진행된다. 제가 끝나면 징을 쳐서 제가 끝났음을 알렸다고 한다. 2021년도 산신제에서는 징을 치지 않았다.

대동소지

개인소지

5) 뒷풀이

산신제가 끝나고 나서 제관과 제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음복을 한다. '산제 음식을 먹으면 길하다'라는 말이 있어 음복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을 제한하여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많지는 않았다.

음복

[3] 동제 이야기

산신제를 지내는 바위 앞 제단에 쇠로 만든 말이 있었다고 한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기록도 없고, 또 몇 개였는지도 자세하지 않다. 2017년 조사 이전에는 3~4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0년대 초까지 1개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쇠마에 대한 증언도 있다. "(쇠마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고,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는 소리는 들었어, 크기는 너무 크지 않고, 어른 손바닥 반만했어, 발도 4개가 달려 있었어, 머리도 달려있고, 그게 한 3마리 정도는 있었지, 내가

쇠마를 본지도 오래됐어. 새마을 사업 전에는 전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그 당시에는 옛날 거를 다 하찮게 생각했잖아." [7]

산제당에서 제가 끝나면 징을 쳐서 제가 끝났음을 마을에 알렸다. 징소리를 듣고 각 가정에서는 시루떡을 준비해 두었다가 마집시루를 올린다. 마을의 산제가 끝나고 이제는 각 가정에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면 제물을 떼어서 바위 앞에도 갖다 놓지, 떡하고 과일하고 고루고루 놓지, 그 다음에 징을 몇 번 치지, 징은 제사를 지냈다는 표시로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몇 번 치는 거야, 징소리를 듣고 가정에서 따로 정성을 드리는 분들도 있었지." [8]

[자료] 선행연구자료 [9]

주소: 덕산면 광천리 1구 [현행, 1787년경부터]		
당이름		산제당
당위치		상황산 중턱
당집	돌무더기	없음
	제단	당집, 암벽아래 제단+호랑이굴+쇠말 여러 개, 위패(상황산신지위), 암벽+호랑이굴
	신목	
제신	신격	산신(호랑이)
	효험	마을 수호
제관	수효	4
	명칭	제관
	선출방법	생기복덕 닿는 자
	기타참석자	부정하지 않은 동민 모두
제의	제전(금기)	1일 전 목욕재계, 당청소, 금줄, 부정 제일연기
	제의순차	산신제
	제의진행	수십번 절, 소지(절을 많이 할수록 복)
	제후	음복
제일 및 시간	횟수	1
	제일	정초 택일
	시간	자정
제비	제비마련 방법	동제답 800평, 마을 기금 임대료
	비용	4가마
제물		백병, 밥, 대추, 포, 밤, 김, 미역, 튀김
선행연구자료		예산군지(1987. 679쪽)

7)지역문화유산 발굴조사사업 용역 최종보고서, 예산군, 2017, p.77,
8)위의 책, p.78
9)이인화,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 민속원, 2006, p.462 예산군 지역 마을제당 유형분류 표임

산신제

5. 신암면 계촌리 산신제

1] 마을연혁

계촌리는 신암면의 북동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예산읍 궁평리와 무한천을 경계로 접해 있고, 서남쪽으로 신암면 오산리, 남쪽으로 신암면 종경리와 무한천 건너 예산읍 창소리, 그리고 북쪽으로 신암면 두곡리와 무한천 건너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예산군 두촌면(頭村面)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곡리(上谷里)를 병합하고, 계촌리라 하여 예산군 신암면에 편입되었다. 무한천 변에 있어 땅이 몹시 질어서 진말이라 하였다고 한다. 방죽골에서 안산까지 고랑이 길어서 마치 뱀처럼 생겼다고 하여 구렁목이라고도 하는데 '길다'와 '질다'가 같이 쓰이고 있는 점을 볼 때 구렁목도 진말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계리(契里) 또는 계천이라 부른 데서 계촌리(桂村里) 지명이 유래되었다.

계촌리 서부에는 해발고도 100m 이하의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주로 이곳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밭농사가 이루어진다. 동쪽으로는 무한천 가로 범람원

충적지가 있어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한천은 본래 사행천으로 심하게 그 흐름이 구불거렸다. 직강화 이전의 지도를 보면 지금보다 더 동쪽 신례원 쪽으로 물이 흐르다가 한줄기 물이 계촌리 앞으로 흘러들었음을 볼 수 있다.

자연마을로는 진말, 새말 등이 있었고 예산읍 창소리로 건너다니던 '공솟티나루'가 있었다. 마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군도20호선인 추사로를 따라 합덕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된다. 왼쪽 길은 추사고택으로 가는 추사고택로이고 오른쪽은 계촌2길로 마을 진입로이다. 사거리에서 약 600여 미터 동쪽으로 진행하면 마을회관이 나온다.

신암면 계촌리 지도

계촌리 산제당 위치: 신암면 계촌리 156-3 번지

2] 산신과 당주를 함께 모시는 계촌리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계촌리 동제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해마다 음력 정월 초에 유왕제와 산진제를 함께 지내왔다. 2021년 당제는 음력 정월 초닷새(양력 2월 16일)에 지냈다. 초닷새 안에는 당제를 지내야 한다고 여겼다. 당제일로 가장 좋은 날은 산신하강일(山神下降日)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날 지내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부정하다고 여겼다.

2) 위치

마을 동쪽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대동샘이 있고, 동쪽으로 야트막한 산길을 따라가면 개간한 밭이 하나 있는데 밭의 동쪽 경계선에 당집이 있다. 구렁목 골짜기 끝 부근에 있는 산이 마을의 안산이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산을 당산, 당집산이라고 부른다. 당이 있는 산의 동쪽은 경사가 심하다. 당집이 있는 곳에서 보면 북쪽과 동쪽 남쪽이 시야가 트여 있다. 예전에는 당집 옆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으나 얼마 전에 고사하여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당집

당집 내부

당집보다 오랜역사를 지닌 참나무를 대상으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소나무 옆에 당집을 마련하였는데 처음 당집은 초가였다고 한다. 해마다 가을이면 당집의 이엉을 새로 이었다.

산신도

볏짚이 아주 귀한 때였지만 집집마다 짚을 갹출하여 이엉을 새로 어었다. 최근에 당집을 기와집으로 다시 지었다. 단칸으로 지어진 산제당은 벽돌과 시맨트로 지은 집이다. 내부에는 왼쪽(남쪽)에 산신도가 걸려있고, 정면(서쪽)에 당주신위(堂主神位)라 쓴 위패가 있다. 산신도와 당주 아래는 나무 제단을 만들어 진설할 수 있도록 했다.

3) 신체

유왕제를 지내는 샘에는 특별한 신체는 없다. 대개의 경우 유왕제는 물을 관장하는 용을 대상으로 한다. 당집 안에 산신도가 있고 당산신주가 있어 산신과 당주를

함께 모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당주를 당할머니로 인식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산신제와 당주를 함께 모시게 된 것이다. 제사도 서열이 높은 산신부터 지내고 이어 당주신인 당할머니에게 유교식으로 지낸다. 당집 앞에 수고가 2m가량 되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주민들은 해마다 잔가지를 치면서 위했는데 고사하고 말았다. 소나무는 신목(神木)으로 여겼다.

대개의 경우 마을 입구나 마을 중앙에 있는 노거수를 신목으로 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촌리는 당산의 당집 옆에 있는 소나무가 그 대상이었던 것이다. 소나무 이전에 큰 참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참나무 밑에 1/3가량 땅에 묻힌 선돌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선돌도 귀하게 여겼다. '선돌 근처에 아이들이 오줌을 누면 고추가 붓는다'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졌다. 제를 지낼 때 선돌과 소나무에 잔을 먼저 올렸다고 한다. 참나무는 해방 무렵에 태풍에 쓰러졌고, 선돌도 없어졌다. 참나무를 대신해서 당집 옆에 있는 소나무를 위하기 시작했다.

계촌리 대동샘

[2] 동제의 절차

1) 제관

섣달에 동회에서 제관을 뽑는다. 제관의 자격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60대 이상의 마을 주민 중에서 선발한다. 제관을 '당주'라고 했고 제관 집을 '당주 닿은 집'이라 했다. 당주는 외부 출입을 금했다. 부부가 각방을 썼고, 술과 담배도 기피했다. 비린 음식도 먹지 않았다. 되도록 집 식구 수가 적은 어른을 택했다. 부정의 경우를 줄이자는 의도였다.

제관뿐만 아니라 제물을 준비할 사람도 뽑았다.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이제는 마을 이장과 반장이 상의하여 정하고 있다. 당제일 택일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초상과 출산, 화재였다. 초상은 3일 부정이라 했고, 출산은 5일 부정이라고 했다. 부정거리가 있으면 적어도 5일 이상 뒤로 연기되었다. 그래야만 부정이 가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촌리에서 부정이 끼어서 당제를 연기한 경우는 없었다.

소지자 명단 작성

소지 명단

2) 제비

제비는 각호당 쌀 한 되로 충당했다. 소지 올릴 비용이라고 했다. 1970년대 경에는 100여 가구가 제비를 각출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제비 내는 호수가 줄어 현재는 군의 지원비로 충당한다.

3) 제수와 진설

제비가 준비되면 예산장에 가서 제수를 마련하였다. 오고 가는동안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또한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바닥을 보며 걸었다. 물건을 살 때도 크고 좋은 것만 골라 샀다. 고기를 살 때도 단 칼에 벤 것만 사왔다. 근 수가 부족해도 다시 썰지 않았다. 제수는 당주집에서 준비했다. 산제당으로 가서 산신과 당주로 나누어 제수를 진설했다. 메와 소고기 산적, 탕, 포와 김, 대추, 밤, 곶감을 단에 올리며 메와 탕은 산제당 앞에서 지어서 솥째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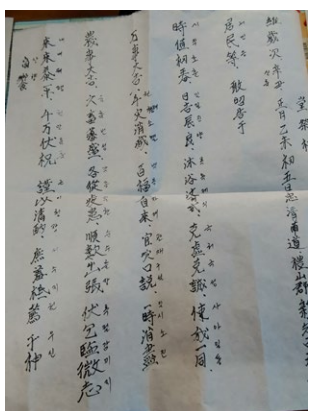
4) 제의 진행과정

열흘 전부터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놓아 마을 주민들에게 근신할 것을 알렸다. 또한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산신제 하루 전에 대동샘을 퍼내고, 샘 주위를 청소한다. 청소를 마치면 황토를 놓았고 금줄도 쳤다. 금줄에는 백지를 달아 확연히 보이게 했다. 이제는 당주 외에는 샘물을 긷지 못한다.

마을 주민은 샘을 청소하기 전에 필요한 물을 미리 받아다 놨다 식수로 사용했다. 새로 고인 물을 길어 제물을 준비한다. 산제당 주변도 청소하고 제기를

가지고 와서 산제지낼 준비를 한다. 용왕제를 먼저 지냈다. 제관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자시(子時)가 가까워 지면 대동샘으로 제물을 가지고 간다. 미리 나와 비손하고 있던 당주의 부인이 밥에 김을 4개 싸서 우물 네 귀퉁이에 넣는다. 한 해 동안 마르지 않고 물이 잘 나기를 비는 행위이다. 마을 전체가 평안하고 풍년이 들기를 빌며 우물을 한 바퀴 돌았다. 산제당으로 가서 산신과 당주로 나누어 각각 제수를 진설한다. 탕과 메는 직접 지어서 솥째 올린다. 소나무가 있었을 때는 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소나무에 잔을 부었다.

축문 쓰기


축문

소나무가 고사한 지금은 생략하고 시작한다. 먼저 산신에 대해 제를 지낸다. 제관이 잔을 올리고 절한 뒤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문은 제관이 직접 매년 새로 써서 사용한다. 아헌과 종헌을 마치고, 당주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낸다. 절차는 산신제와 동일하게 유교식이다. 메와 탕을 다시 지어 솥째 올린다. 제를 다 지냈음을 알리고 음복을 한 후 당주는 먼저 마을로 갔다.

이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산신 소지를 먼저 올린다. 그리고 가정마다 1장씩 소지를 올려 주었다. 예전에는 마을의 무당이 소지를 올려 주었다고 한다. 마을 주민 모두의 소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소지를 끝내고 마을로 돌아온다.

5) 뒷풀이

예전에는 밤에 제를 지냈기 때문에 뒷풀이가 어려웠다. 제가 끝나고 음복하는 것으로 대신했고, 산신제를 다 마치고 소지까지 끝나면 남은 음식을 당주집으로 보냈다.

[3] 동제 이야기

당집산은 애초에 송당(松堂)이라고 불렀다. 단지 소나무가 많아서 송당이라고 한 것보다는 당집 옆에 있었던 소나무를 신목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당집산 출입을 금했다. 땔감이 필요해도 멀리 도고산이나 가야산에서 채취해왔지 당집산의 소나무는 베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산에 비해 소나무숲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당집 옆에 있었던 소나무 이전에 큰 참나무를 위했다. 참나무가 태풍에 쓰러져 고사하자 모 종교 단체에서 땔감 화목으로 베어 갔다고 한다. 참나무 옆에는 선돌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그 선돌도 참나무가 없어진 그 즈음에 없어졌다고 한다. 선돌을 가져간 사람이 비운에 죽었다는 등 소문이 돌았지만 확인 할 수는 없었다.

현재의 산신도 이전에 산신도가 있었다고 한다. 1950~60년경에 조성한 것인데 언젠가 도난을 당하였고 그 후에 주민들이 갹출하여 새롭게 조성한 후 당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마을 주민이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대동샘은 마른 적이 없다. 100여 가구가 모두 대동샘 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 아무리 가물어도 식수 부족으로 고생한 적이 없었다. 항상 맑고 찬 물이 흘러 나왔고, 염도도 낮아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무한천 변에 보를 만들었는데 송당보라고 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 모두 참여하여 보막이 공사를 했다. 계촌리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논에 급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년 농사의 중요한 큰 행사 중의 하나였다. 보공사의 마지막을 '물목 지른다'고 했다. 마지막 남은 1m 정도를 막으면 보막이 공사는 끝이 난다. 마지막 보막기 전날 공사관계자들은 송당, 즉 계촌리 산신당에 가서 제를 지냈다. 이것을 '보제'라고 했다.

[자료] 선행연구자료 10)

주소: 신암면 계촌리 [중지, 70년대 추정]		
당이름		송당 (산신할머니)
당위치		상황산 중턱
당집	돌무더기	없음
	제단	초가 1칸
	신목	괴목
제신	신격	산신령
	효험	풍농, 마을 수호
제관	수효	2~3
	명칭	불명
	선출방법	40대 이상 청결한자 선출
	기타참석자	없음
제의	제전(금기)	근신, 목욕
	제의순차	송당
	제의진행	불명
	제후	음복, 노인 초청 대접
제일 및 시간	횟수	1
	제일	음 정월 초3일
	시간	밤8시~11시
제비	제비마련 방법	
	비용	4000원
제물		술, 백반, 우육, 과실
선행연구자료		한국의 마을제당(1998. 229쪽)

10)이인화,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 민속원, 2006, p.462 예산군 지역 마을제당 유형분류 표임

산신제

6. 신암면 예림1리 산신제

1] 마을연혁

예림리는 신암면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으로 신암면 용궁리, 서쪽으로 중예리, 남서쪽으로 별리, 남쪽으로 조곡리와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 당진시 합덕읍 신리, 신석리와 접하고 있다. 조선조 때에는 예산군 입암면(立岩面)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송림리(松林里), 영산리(令山里) 면천군(沔川郡) 합북면(合北面) 영상리(令上里), 영하리(令下里)를 병합하고, 예림리라 하여 예산군 신암면으로 편입되었다.

마을의 북동부 및 남동부는 100m 이하의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다. 남동부 방향에 용산(龍山;74.3m)이 있어 용궁리와 경계를 이룬다. 서쪽에는 삽교천이 남쪽에서 유입하여 북쪽으로 나가며 삽교천 주변으로 충적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의 생활은 삽교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을 서쪽으로 펼쳐진 개논(갯논)에서 농사를 지었다. 바닷물이 들어와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마을로는 송유골, 산뒤골은 1리이고 구장터, 답원 등은 2리이다. 마을에는

소나무가 많았다. 송충이 피해가 많아서 벌목을 했지만 현재도 소나무가 많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150여 호가 사는 대촌이었으나 현재는 고령화와 이농으로 주민이 많지 않다. 마을의 북부 경계와 중앙을 곡형으로 지나고 있는 군도7호선이 있고, 대부분의 도로는 마을의 동부에서 군도7호선과 연결된다.

신암면 예림1리

예림1리 산신각 위치: 예림리 산35 임

2] 덕적도의 사람들도 지낸 예림리 산제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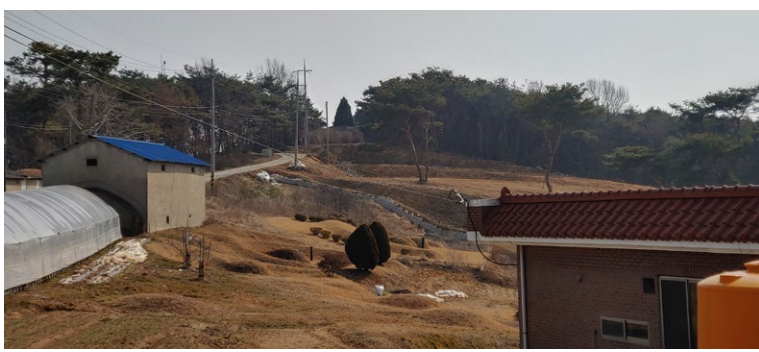
매년 음력 정월에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초입에 있는 제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음력 1월 8일(양력 2월 20일) 10시에 지냈다. 당제를 모시는 시간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뀐 때는 1990년도 후반이었다. 당시 김찬기 옹이 당계장을 맡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날자와 시간을 편의에 의해 정하자는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림리 산신제의 기원은 알 수 없다. 예전에는 삽교천을 따라 예림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고, 산신제도 배를 가진 선주들이 중심이 되어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974년 아산만 방조제 공사로 바닷물의 유입이 막히자 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매년 당제를 지냈다.

2) 위치

산신각은 예림리 산35 임야에 위치한다. 이것을 당집봉이라 부른다. 제당은 마을의 입구에 있다. 오산로에서 북쪽으로 갈라져 들어오는 길이 용산로이다. 용산로를 따라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조곡리2구 입구로 좌회전 한 후 곧바로 조곡중예길로 우회전해서 진행하면 대산산업이 나온다. 대산산업 바로 뒤에 소나무숲이 울창한 곳, 도로 좌측에 산제당이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남동쪽으로 300여 미터 거리이고 아랫마을 조곡리의 산제당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거리이다.

당집



마을회관에서 본 당집봉

예전에는 제당이 삽교천 변에 있었다고 한다. 개논 근처 '맨소나루'였다고 기억한다. 이 나무에 배를 맸다고 하여 '맨소나루'라고 부르던 것이 '만소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강물이 자주 범람하여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산제당을 이전하고 지은 건물은 얼마 후 소실되어 현재의 제당을 다시 마련하였다. 제당의 규모는 크지 않다. 단칸 기와을 얹은 시멘트 건물로 제당 내부에 단촐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 남쪽의 벽에 감실을 만들었고, 이곳에 산신과 성황의 지방을 모셨다. 제당 주변에는 소나무 군락이 둘러있다.

3) 신체

신체는 산신과 성황신이다. 예림리의 산신제는 덕적도 뱃사람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삽교천의 구만리까지 바닷물이 유입되어 장삿배가 들어왔다. 예림리는 구만리로 올라가는 배가 경유하는 곳이었다. 삽교천 수로를 이용하여 새우젓 장사를 하던 뱃사람들은 해상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 장소가 필요했다. 삽교천에서 가까우면서 마을의 당제를 지내는 예림리 개논 근처 고목에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예림리의 동제가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 성격으로 변한 것은 선원들의 왕래가 끊긴 이후였다. 더이상 덕적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자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제를 지내게 된 것이다. 삽교천이 직강화되기 이전에는 지금보다 더 서쪽으로 하천이 치우쳐 있었다. 삽교천 주변의 다른 마을은 산이 없는 평지였고 그나마 예림리가 낮은 구릉이지만 산이 있었다는 점에서 제당으로 적합한 장소로 여겼던 것이다. 현재 서낭당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남쪽에 마을로 들어오는 초입에 돌무더기로 되어 있었던 서낭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새마을 운동 시기에 없어졌지만 동제에 그 유습이 남아 있어 성황신으로 삼은 것이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동제를 주관하는 사람을 '당주'라 한다. 책력을 보아 일진이 닿는 사람으로 당주를 삼는다. 동제를 주관하는 당주를 뽑고, 독축을 담당하는 축관과 소지를 올릴 사람도 선출한다. 당주를 뽑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 강창두 옹이 주로 당주를 해마다 가려주었다. 당주 자격은 마을 남자면 된다. 단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보다 농사일을 하다가 피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주가 되기는 어려웠다. 마을 사람 전체 생년월일을 모아서 그해 가장 생기복덕이 있는 사람을 고른다.

당주와 축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신상을 모두 조사해서 부정이 없는지를 먼저 보고 최종적으로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당사자가 부정이 있다든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 정했는데 그 시간이 대략

2, 3일 걸렸다고 한다. 당주로 정해지면 집 밖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부부 합방이나 술과 담배도 삼갔다. 당주집에는 사흘전부터 액맥이 황토를 놓았고, 축관집도 황토로 표시했다. 제당 앞에도 세 무더기의 황토를 놓아 출입을 금하였다. 예림리는 황토흙으로 출입을 못 하게 하였고 금줄은 치지 않았다.

제일 3일 전부터는 동제를 지낼 임원들은 한 곳에서 함께 지냈다. 개별적인 금기도 중요하지만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현재는 그렇게 금기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 2021년에는 마을 회관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액맥이 황토도 생략했다.

2) 제비

광복 무렵에는 당제를 지내는 제비로 각 가정마다 쌀 1되씩 갹출하였다. 제비를 걷는 '당계장'이 있었고 쌀로 받은 제비는 정확하게 문서로 남겼다. 그 문서를 '수봉기'라고 불렀다. 계장은 강창주, 김찬기, 이관복씨 댁에서 주로 보관했다. 집안의 어른들께서 오랫동안 당제를 주관하셨기 때문이다. 보관하던 집 어른이 별세하시기 전에 당계문서를 옮겨 놓았다. 보관 중에 별세하시면 부정탔다고 해서 당제 문서를 다 태웠다고 한다. 현재는 제비를 준비하는 것이나 동제를 준비하는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다.

마을 공동기금과 군에서 지원하는 동제 지원비로 충당한다. 예전에는 동제에 쓰인 경비를 수봉기에 총액, 경비 등을 자세히 적었다. 그리고 남은 경비는 다음 해의 당제를 위해 이월하였다. 산제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땅이 300평이라고 한다. 도지를 받아서 제비에 충당한다.

진설준비

3) 제수와 진설

동제의 진행을 맡은 사람들은 부정한 일을 보거나 당하면 안된다. 제수를 마련하는데도 정성을 다했다. 제수를 구입하는 날 아침에 목욕재계하고 읍내 장에 나가 제수를 준비한다.좋은 것만 가려 사며 가격 흥정을 하지 않았다. 가게도 이곳 저곳 가지 않았다.한 군데서 모두 구입했다. 장사를 하는 상인도 제수 물건 임을 알고 말을 많이 걸지도 않고 흥정도 하지 않았다.

제수를 구입해 온 후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제당 감실을 열고 '산신지위(山神之位)'와 '성황지위(城隍之位)'지방을 붙인다. 그 다음에 메, 탕, 산적, 포와 대추, 밤, 곶감 등을 진설한다. 사과와 배는 토종 과일이 아니라 올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술을 올리지 않고 청수, 맑은 물을 올렸다. 유교식으로 진설하고 제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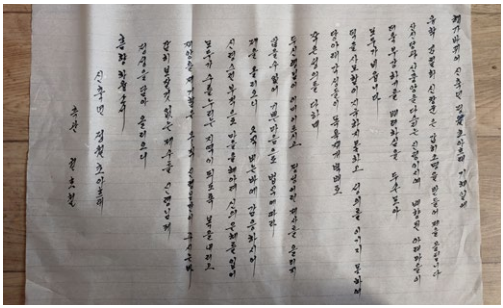
진설

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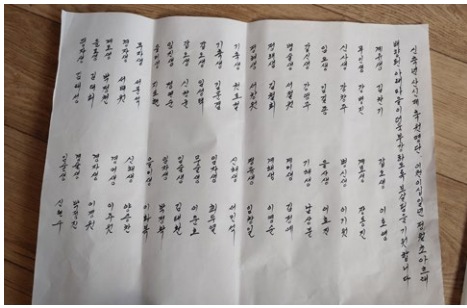
잔올리기

4) 제의진행 과정

제를 지내는 당일 아침에 산제당 주변을 청소한다. 마을 회관 앞에는 액맥이 황토로 표시를 한다. 초상집이나 아이를 출산한 집 사람들은 왕래를 금한다. 제수음식이 준비가 되면 산제당으로 이동을 한다. 예전부터 당집 앞에서 불을 때서 메를 지었다. 현재는 휴대용 취사도구를 이용해 메를 짓는다. 진설을 하고 당주가 초헌을 한 다음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이어 아헌과 종헌을 하고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제를 마친다.



축문



소지자 명단

소지는 마을의 대동소지를 먼저 올리고, 주민들 각호마다 소지를 올린다. 각 가정의 호주 성명을 호명한 후 소지를 올리고 한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한다. 동제를 주관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번잡하지는 않다. 소지를 마치고 음복을 한다. 음복 후에 제단 위에 약간의 음식을 떼어 놓고 하산한다.

대동소지

소지명단 호명

소지올리기

예전에는 늦은 오후에 산제당으로 가서 날이 어두워진 이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2021년도에는 오전 10시에 지냈다.

음복과 결산

5) 뒷풀이

산신당에서 제사가 끝난 후 마을 회관에 내려와 점심 겸 음복을 했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당제에 동참도 하지 않고 음식도 나누지 않는다. 동네 주민 중 성인남자만 참석하였다.

[3] 동제 이야기

처음 제를 지내던 곳이 만소나무가 있던 장소였으나 해방 무렵에 나무가 고사하였다. 제장으로 적당한 곳을 찾아 지은 것이 현재의 당집봉이었다. 당집봉에 당을 지어 놓고 마을 사람들은 위하기 시작하였다. 당집 주변의 나무를 훼손하면 벌을 받느다고 금기시 했다.

처음에는 초가로 지은 당집이었다. 매년 가을에 이엉을 새로 할 때면 총각들이 많이 동참하였다. 당집 지붕을 할 때 일을 도우면 장가를 간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인 모를 화재를 만나 당집이 전소하였다. 당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갹출하여 당집을 새로 건축하였다, 당제를 잘 지내면 '보름날 호랑이도 지나간다'고 했다. 산신이 절대적으로 도와주어 마을이 편안하다는 이야기이다.

반대로 당제를 지낸 후 산에서 여우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해는 가축 피해도 많았고 초상도 많았다고 한다. 당제 전에 초상이나면 사흘이 지난 후에 지냈고, 출산부정은 닷새를 연기했다. 화재가 있어도 연기하였는데 사흘이 지나야 했다. 그래야 부정이 가신다고 생각했다. 정초에는 산제당 부근 송유골의

출입을 금했다. 당제 기간을 모르고 마을에 들어온 외부인은 당제가 지나야 돌아갈 수 있었다. 철저하게 금기를 지켜 당제를 지내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 있었다. 계통문이라는 통문을 돌렸다. 정해진 제일과 시간 그리고 당주의 이름을 적고, 마을 주민 전체의 이름을 적었다. 지금이야 쉽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지만 예전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계통문은 릴레이로 전달되었다. 내용을 숙지한 마을 주민은 자기 이름에 표시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 지나기 전에 전 주민이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금기하자는 내용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제의를 담당하는 당주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가 부정한 일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을 당한다든지, 출산, 화재 등 부정적인 일이 없어야 하겠고 각자 근신하여 피를 보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당주는 마을 사람들과 말을 하지도 않았다.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도 계통문으로 당주로 선출된 사람임을 알고 말을 걸지 않았다. 계통문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었던 편리한 방법이었다. 예림리 동제에는 풍물이 없었다. 이날은 마을이 조용하다. 집밖으로 나다니는 사람 없이 모두 집안에서 근신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자료] 선행연구자료 11)

주소: 신암면 예림리 송림 [중지, 70년대 추정]		
당이름		산제당
당위치		동네 중앙 당집봉 북향
당집	돌무더기	
	제단	초가 1칸 없고 제단, 제기
	신목	
제신	신격	산신
	효험	
제관	수효	1
	명칭	당산주
	선출방법	생기복덕 가려 선출
	기타참석자	축관
제의	제전(금기)	목욕, 금인, 금주, 금녀, 부정금지
	제의순차	산신제
	제의진행	제의 - 소지
	제후	음복
제일 및 시간	횟수	1
	제일	음 정월 길일 택일
	시간	오후 7시~10시
제비	제비마련 방법	가을 백미 2되 거출
	비용	백미 5가마
제물		백병, 우육, 식과
선행연구자료		한국의 마을제당(1998. 230쪽)

11)이인화,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 민속원, 2006, p.462 예산군 지역 마을제당 유형분류 표임

산신제

7. 신암면 조곡1리 산신제

1] 마을연혁

조곡리는 신암면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신암면 오산리, 서쪽으로 고덕면 중예리와 별리, 남쪽으로 오가면 내량리·신암면 오촌리, 그리고 북쪽으로 신암면 예림리와 접해 있다. 조선시대는 예산군 입암면(立岩面) 지역이었으며 '새'가 많았으므로 '새실' 또는 한자로 조곡(鳥谷)이라 하였다. '새'는 '풀'을 지칭하는 말인데 한자로 새 조(鳥)자로 표기되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삽교천의 동쪽에 위치한 조곡리는 풀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에 점촌리(店村里), 중야리(中野里), 산촌리(山村里)가 병합되어 조곡리라는 지명으로 예산군 신암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지역굴, 북당골, 아랫새실, 윗새실, 평화촌 등이 있다.

마을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100m 이하의 구릉지여서 밭농사와 과수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 도로로는 군도5호선인 오신로가 조곡리의 남동부 경계를 지나고 있고, 군도15호선인 조곡남로가 남부를 남서-북동 방면으로 지나고 있다.

신암면 조곡1리 윗새실

산제당 위치: 신암면 조곡리 14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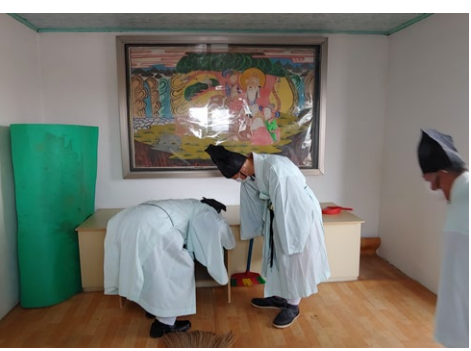
2] 전통 있는 윗새실 산신제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조곡리 윗새실 산신제의 연원은 알 수가 없다. 산신제를 지내는 다른 마을과 같이 조곡리도 산신제의 시원은 알 수 없지만 마을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지내왔다고 생각한다. 산신제를 지내면서 남겼던 기록이 그동안 산신제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 작고하시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동안의 산신제에 대한 역사가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음력 정월 초사흗날에 지내는 산신제는 마을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을 기원하는 것으로 윗새실의 아담한 숲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지낸다. 조곡리 인근의 중외리나 별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참여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마을 주민들만 참석하였다.



산신당 내부

산신당과 제 지내는 모습

산신당 앞

회관 앞 액맥이 황토

출발 전 회관 앞

2) 위치

산제당은 조곡리 142-67번지이다. 마을회관에서 동북쪽으로 약 0.6km 쯤에 위치하고 있다. 야트막한 구릉의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산제당 자리를 '당집봉'이라고 부른다. 산제당은 최근에 지은 것으로 적색 벽돌에 청기와 건물이다. 당의 앞 쪽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았으며 제를 지낼 때는

액맥이 황토를 놓는다. 당의 문 위에 산신당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산제당 내부 동쪽 벽에 산신도가 위치하고 산신도 아래에 수납을 할 수 있는 단을 마련하였다. 그 단 위에 진설을 한다. 제당 내부는 협소하지만 지은 지 오래되지 않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제관과 대여섯의 어른이 들어서면 알맞은 공간으로 되어 있다.

제당으로 향하는 당주들

3) 신체

신체는 산신이며 산제당의 산신도를 대상으로 한다. 당산신령기를 들고 회관에서부터 산제당까지 도보로 이동한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정월 초사흘에 산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관을 뽑는다. 이 마을에서는 당주라고 부르는 산신제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는데 동회를 소집하여 운이 닿는 사람을 뽑는다. 특별히 '당주 닿는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주민들이 주관하여 산제를 지내는 것이다.

당주 중에서 달리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을 정하고 각각 임무를 분담한다. 대략 제관을 포함하여 일을 돕는 사람들은 대략 7~8명인데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을 더욱 줄였다. 마을에서 나이 드신 어른이나 이장이 당주를 했다.

최근에는 기독교 교인인 경우 스스로 산제에 참석치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당주로 선정이 되면 근신을 한다. 외부 출입을 금하고 상가의 조문은 절대 금해야 하고 심지어 아이의 출산도 보면 안 된다. 피를 금기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당주의 집 앞에는 황토로 액맥이를 했다. 제를 지내는 당일에는 마을회관의 마당에도 황토를 놓아 부정을 막았다. 세 개의 황토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여러 군데 놓아 표시한다.

2) 제비

제비는 각 가구당 추렴해서 산제를 지냈다. 2021년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를 받아 제수를 마련하였다.

3) 제수와 진설

제물은 제의 전날 예산읍에서 장만한다. 제물을 사러 가는 길에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산제날을 다시 잡아 거행한 경우도 있었다. 부정한 것을 보고 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았다. 차라리 안 지내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제물은 곶감, 사과, 배, 대추, 밤 등 실과와 북어, 산적, 돼지머리, 백무리, 떡, 감주, 소고기, 무를 넣고 끓인 탕 등을 올린다.

산제준비

진설

4) 산신제 진행 과정

제의 당일에 제물을 준비하는 유사(有司) 집에 당주들이 모였었다. 2021년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당주들이 모여서 준비했다. 조곡리에서는 산신제에 여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심지어 제물을 준비하는 유사 집 여자들은 새벽밥을 먹고 다른 집으로 가야만 했다. 철저하게 남자들만 모여서 해 왔다. 예전에는 제의 당일 아침에 풍물을 치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한다. 이제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풍물은 생각하지도 못 한다.

천신기

천신기 달기

백지를 길게 연결하여 천신기(天神旗)를 만든다. 당일 아침에 준비를 하는데 '조석지서조곡지후당산신령사령기(鳥石之西鳥谷之後堂山神靈司令旗)라 대자로 쓴다. 조석(鳥石)은 마을의 북동쪽 용궁리와 경계를 이루는 조석산(鳥石山)을 말하는 것이고, 조곡(鳥谷)은 마을 지명으로 산제당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산제당의 당산신을 상징하는 기를 만들어 가지고 산제당으로 간다. 깃대의 꼭대기에는 꿩장목을 장식했다. 깃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출발한다. 당주들은 북소리에 맞춰 당에 도착하면 제당 앞에 기를 세우고 진설한다.

예전에는 먼저 제당을 청소하고 청소를 마친 다음에 산제당에 보관한 제기를 가지고 마을로 와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제당으로 다시 가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은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전 중에 산제를 마친다. 산신도 앞에 제단을 마련한다. 깨끗한 백지를 깔고 진설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지내며 먼저 술을 올리고 절을 한 후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린다.

청수올리기

독축

대동소지

마을 전체의 평안을 축원하는 대동 소지를 먼저 올린다. 그다음에 당주가 각각의 소지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 각각의 소지의 순으로 올린다. 이전에는 소지를 올리는 인원수가 200명이 넘는 해도 있었다고 한다. 쌀 한가마니를 희사할 경우 평생 소지를 올려주었다고 한다. 산신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남겨 놓았다. 촛불을 밝혀 둔 채 마을회관으로 내려왔다가 다음날 새벽 4시 경에 다시 산제당으로 가서 천신기를 소지하고 뒷정리를 한 다음 돌아왔다. 1박 2일에 걸친 산신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아침에 시작하여 정오 경에 산신제를 마쳤다.

5) 뒷풀이

산제당에서 산제를 마치고 하산하여 마을 회관에서 음복을 한다. 예전에는 풍물패의 한바탕 어우러짐도 산제의 일부로 포함되어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제는 당주들만의 조촐한 행사로 축소되었다.

[3] 동제 이야기

황토를 놓아 부정을 막는 액막이를 하는 것은 다른 마을과 동일하다. 금줄은 사용하지 않았다. 마을 동쪽에 고인돌로 일컬어지는 너럭바위가 있다. 실제 마을 주민들도 고인돌로 인식하고 있다. 이 고인돌은 예산군의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자료] 선행연구자료 12)

주소: 신암면 조곡리 윗샛실 [현행, ?~현재]		
당이름		산제당
당위치		동네 동쪽 언덕 당집종 산정(15m)
당집	돌무더기	없음
	제단	초가1칸 → 기와1칸, 제단 → 호랑이 산신도 추가
	신목	
제신	신격	산신
	효험	동네 수호
제관	수효	1
	명칭	당주
	선출방법	생기복덕 운 닿는 사람
	기타참석자	7~8명 동네 이장 다수
제의	제전(금기)	부정 보지 않고 목욕, 부정시 7일 연기, 天神旗(천신기) 꽂기, 제당 청소
	제의순차	산신제
	제의진행	제의 - 소지
	제후	음복, 회의, 놀이
제일 및 시간	횟수	1
	제일	음 정월 택일
	시간	18시 30~21시
제비	제비마련 방법	동전(洞田) 300평 도지
	비용	백미 6말
제물		백병, 우육, 실과, 술
선행연구자료		한국의 마을제당(1998. 231쪽)

12)이인화,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 민속원, 2006, p.462 예산군 지역 마을제당 유형분류 표임

예산의

III. 목신제

목신제

1. 대흥면 상중리 목신제

1] 마을연혁

상중리는 대흥면의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다. 서쪽으로는 봉수산이 위치하고, 동쪽으로는 예당저수지가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마을이다. 서쪽으로 홍성군 금마면과 봉수산을 경계로 접해 있고, 남쪽으로 광시면 마사리와 동산리, 그리고 북쪽으로 대흥면 동서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흥군(大興郡)의 중심지로 읍내면(邑內面)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에 상리(上里)와 중리(中里)를 병합하여 상중리(上中里)라 하여 예산군 대흥면에 편입되었다. 동부, 남부 및 중부에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어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봉수산의 북동부 사면에는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골말, 불당골, 빗돌거리, 상리, 옥담거리, 옷밭거리, 중당 등이 있다. 불당골은 불당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불당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빗독거리는 예전 관리들의 선정비가 있었던 곳이다.

옷밭거리는 칠전(漆田)이라 하며 옻나무밭이 있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봉수산에는 사적 제90호 임존성(任存城)이 있다. 상중리는 지방도 619호선

예당로가 남북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동쪽으로는 예당저수가 있다. 주요 시설로는 대흥중고등학교 등이 있다. 유적으로는 임존성 이외에 상중리 중단 가마터, 상중리 사지 등이 있고, 설화로는 <묘순이바위>, <원탱이의 말무덤>이 있으며, 의좋은 형제의 사적을 기록한 우애비가 있다.

대흥면 상중리

느티나무 위치: 상중리 347-1번지

2] 배맨나무 목신제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상중리의 목신제는 2월 초하루 양력 2021년 3월 13일 11시에 노거수 앞에서 지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목신제를 지내면서 마을잔치를 벌렸다. 흔히 이 날을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날로 '농민의 생일' '머슴날' 등으로 불렀다. 마을에서는 2월 초하루 이전부터 풍물을 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농사철이 시작되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갖기도 어렵다. 후대로 오면서 농경의 형태도 변했고, 머슴이라는 일꾼들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풍물을 담당했던 노인들이 시간이 흘러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신제도 중단되었고 마을 주민단합 잔치도 사라졌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뒤에 다시 목신제를 지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민과 배맨나무

제관과 배맨나무

2) 위치

상중리 중당마을 뒤편에 노거수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다. 이 나무를 마을 주민들은 '배맨나무'라고 부른다. 660년에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했다. 아무런 방비도 없었던 백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백제의 유민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분연히 일어섰다. 임존성에 거점을 확보한 백제의 유민들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 느티나무는 그 당시 당나라 소정방이 임존성에 있는 백제 부흥군을 치기 위해 왔을 때 배를 맨 나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곳 노거수 주변의 땅을 파보면 갯벌에서나 볼 수 있는 진흙이 나온다고 한다.

전설과 진흙이 나온다는 이야기로 배가 들어왔을 개연성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설은 그 진위를 논하기가 어렵다. 대개 승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확대하여 미화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적으로 패망국의 기록은 허무맹랑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기록한 경우가 허다하다. 어쨌든 노거수는 수많은 시간 동안 풍상을 겪으면서 마을 주민의 희노애락을 지켜 보았다.

3) 신체

목신제를 지내는 대상은 마을의 뒤쪽에 있는 천년이 되었다는 느티나무다. 봉수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의 옆에 자리한 노거수는 높이가 약 19m이며 둘레는 7.5m이다. 이곳에서 2월 초하루와 칠석에 두레먹이를 하면서 고사를 지냈다. 예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봄에 노거수의 잎사귀 피는 것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느티나무의 잎이 고르게 피면 그해는 물도 흔해서 풍년이 온다고 믿었다. 반대로 듬성듬성 이파리가 피어나면 그해는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 징조라고 생각했다. 느티나무는 동제를 지내는 장소이기도 했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도 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정월 14일이나 칠월 칠석이 되면 제수를 마련하여 목신제와는 별도로 느티나무 밑에서 치성을 드렸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목신제의 제관은 마을 이장이 맡았다. 학식이 있는 마을의 어른 중에서 다복한 사람을 축관과 헌관으로 정했다. 제관이나 축관, 헌관은 다른 마을에 비해 금기 조항이 많지 않았다.

2) 제비

목신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했다. 출향인의 희사도 있었다. 마을에 묘를 쓴 타지인도 제비를 내서 성의를 표했다. 2021년도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로 충당하였다. 동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히 구입한 부동산은 없다.

진설

진설

3) 제수와 진설

2021년도에는 3월 13일(음력 2월 초하루) 11시에 목신제를 지냈다. 제수를 준비하는데도 특별히 금기시해야 할 일은 없다. 목신제를 지내는 아침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사음식를 준비했다. 느티나무에 금줄을 치고 느티나무 동쪽에 상을 놓고 진설한다. 제사 음식은 돼지머리와 시루떡, 삼색실과와 돈육, 통북어, 과자 등이다.

4) 제의 진행 과정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노거수에 금줄을 두른다. 왼새끼 줄에 백지를 끼운 금줄을 치고, 진설을 한다. 제관인 이장이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린 후 재배한다. 이때 제의를 돕는 사람이 제관이 올린 술잔을 받아 나무 주변에 잔을 붓는다. 축관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고 독축이 끝나면 제관과 일동은 모두 재배를 한다, 이어 대동소지를 올린다.

대동소지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돼지머리에 성의껏 돈을 꽂고 절한다. 의식을 마치면 음식을 조금 떼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제사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음복을 한다. 마지막으로 북어를 노거수에 매달아 놓으면 모든 의식은 끝난다.

잔올리기

잔붓기

재배

5) 뒷풀이

노거수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마치면 마을 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누었다. 다른 마을에서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중리 목신제는 성별 제한이 없다.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여 즐기는 마을 행사였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뒷풀이를 생략했다. 예전에는 목신제를 전후해서 풍물을 치고 흥겹게 행사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풍물이 따르지 않는다.

제사가 끝난 후 북어와 실타래

마을주민

마을주민 잔올리기

음복

[3] 동제 이야기

<마을에 우환이 있어 동제를 다시 시작하다>

“한번은 동네 이장이 와서 목신제를 지낸다면서 축문을 써달라고 해. 인저 동네가 자꾸 망조가 들었다며, 사람도 죽어 나가고, 어느 해인가 한 해 동안 열두 번 초상이 난 적이 있어요. 거기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아이가 한 명도 안 생겼어. 동네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디, 전부 과부 아니면 늙은이 뿐이니 희망이 있나? 그래서 동네 잘되게 해달라고 제를 지내기 시작한 거여” [13)]

<중단한 적이 없어>

“느티나무 고사를 옛날부터 지냈지, 옛날부터 2월 초하룻날에 지냈어요. 중단한 적이 없어. 일정 때는 잘 몰라요. 기억에는 분명히 자유당 시절에는 지냈어요. 날짜는 2월 초하루가 맞아요.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배를 맸었다고 해요. 그냥 제사 지내는 거라고 하지. 여자, 남자 동네 사람들 전부 나와서 지내요. 풍물도 치고 그래요. 비용은 동네 돈으로 하지. 동네에서 돈을 주면 그걸로 제사를 지냈지 뭐.” [14)]

13)(상중리 거주 고(故) 강완, 1926년생) 예산 동서·상중리(上), 민속원, 2009, p.241
14)지역문화유산 발굴조사사업 용역 최종보고서, 예산군, 2017, p.73

목신제

2. 신양면 차동리 정자나무 칠석제

1] 마을연혁

차동리는 신양면의 동부에 위치한다. 동쪽으로는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와 명곡리가 금남정맥을 경계로 접하고 있다. 예전에는 차령고개를 넘어 유구와 소통했었다. 서쪽으로 신양면 대덕리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 신양면 여래미리와 접해 있다. 북쪽으로 신양면 하천리와 산을 경계로 접해 있다.

조선시대에는 대흥군(大興郡) 거변면(居邊面)에 속해 있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송정리(松亭里)와 불목동(不目洞)을 병합하고, 차동리라 하여 예산군 신양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불모골 또는 불목동은 송정 동북쪽에 있었으며 부처가 있었다고 한다. 차동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 대촌은 큰말이라고도 했으며, 송정은 차동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신양면은 신양천과 화산천 주변에서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차동리와 대덕리는 차동천이 흐르고 있지만 골짜기가 좁아서 논이 적다. 대덕리보다 위쪽에 있는 차동리는 논이 없으며 구릉지에 밭을 일구어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마을의 중앙으로 동서간 당진영덕고속도로인 고속국도30호선이 지나고 있다. 국도32호선인 차동로도 당진영덕고속도로와 같은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예전에는 유구읍과 차동고개로 연결되었으나 이제는 국도와 고속도로가 모두 터널로 연결 되었다. 유적으로는 구련사와 불무골 가마터, 신덕사지 등이 있고, <수레네미고개의 구렁이>라는 이물교구설화(異物交媾說話)가 전하고 있다.

신양면 차동리

칠석제 위치: 신양면 차동리 655

2] 정자나무 칠석제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칠석이나 백중 때 지내던 정자나무 고사를 2021년에도 칠석(양력 8월 14일)에 지냈다.

2) 제당 위치

차동리 섬막골 마을 가운데에 수령 400년에서 500년 가량 되었다는 느티나무가 있다. 이곳에서 칠석제를 지낸다. 정자나무가 있는 곳에서 지내는 칠석제와는

달리 북쪽에 위치한 마을 입구에 서낭당이 있어 이곳을 위하기도 했다. 서낭당에서는 동제가 아니라 각각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면 떡을 찌고 제물을 준비하여 제를 지내기도 했다.

3) 신체

특별한 신체는 없다. 정자나무를 대상으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목신제를 지냈다.

마을 앞 고속도로

정자나무

[2] 동제의 절차

1) 제관

마을에서 나이든 어른이 제관을 맡았다. 산신제와 달리 금기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전체적인 일은 마을 이장이 담당한다.

2) 제비

마을의 공동자금과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제를 준비한다.

3) 제수와 진설

제물을 부녀회에서 담당했다. 부녀회 회원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떡을 찌고 돼지머리를 삶았다. 제물이 준비되면 정자나무 아래에 상을 놓고 돼지머리, 시루떡, 포, 술 등 준비한 제물을 유교식으로 진설한다.

진설모습

잔 올리기

4) 제의 진행과정

제사는 유교식으로 진행한다. 제관이 잔을 올리고 이어 독축을한 후 참석한 사람들 중에 술을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차례로 술을 올렸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했다. 음복 후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었다.

나무에 잔 붓기

제사 끝나고 나무에 올려 놓은 북어와 실

마을 주민들

5) 뒷풀이

예전에는 칠석이나 백중 때 정자나무 아래에서 고사를 지내고 온 종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를 지냈다. 마을잔치로 인식하고 있었던 칠석제는 바쁜 농사일을 거의 마무리 짓고 행하는 마을 공동의 행사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경직되지 않았다. 풍물을 치면서 하루를 즐겼다. 제의 시작도 풍물로 시작했다.

풍물패가 동네를 한 바뀌 돌아오고 나서 나무 주변을 돌면서 액을 막은 뒤에 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정월 초의 행사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나무에 금줄도 두르지 않고, 액맥이 황토도 준비하지 않는다.

[3] 동제 이야기

<함부로 자르면 큰일 나 !>

“그 나무가 한 400~500년 됐을 거야, 보호수로 지정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팻말을 갖다 붙이지 않았어, 그거를 함부로 자르면 큰일이 난다고 해서 그냥 가지가 늘어지게 두었지, 지금은 군에서 나와서 다 쳐요. 정자나무를 위하는 건 음력 7월이 한가하니까 그때 위하고 노는 거야. 원래는 칠석 아니면 백중에 위했는데,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주로 그렇게 했지, 할머니들이 동서남북 재배하고 얼마나 위했나 몰라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간단히 해요.”

<정자나무에 산신이 있다고 믿은 거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셔,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자손들은 객지로 다 나가서 살았지. 돌아가신지 얼마 안 되었어. 그분 성함이 오맹희 씨야. 그분이 정자나무를 지극히 위했어. 내 집안도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지. 그분은 정월에도 시루 해서 놓고, 또 농사짓고 나서도 나무 앞에다가 시루해서 놓고 통북어·사과·배 가져다 놓고 재배하고 그랬어. 옛날에는 그런 떡을 먹으면 재수있다고 그랬지, 그 정자나무에 산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지” [15)]

15)지역문화유산 발굴조사사업 용역최종보고서, 예산군, 2017, p.154

예산의

Ⅳ. 유왕제 미륵제 머슴제

유왕제

1. 신암면 신종2리 유왕제

1] 마을연혁

신종리는 신암면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아산시 선장면 신덕리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신암면 신택리, 남쪽으로 신암면 두곡리와 접하고 있다. 북쪽은 신택리 일부와 하평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는 천안군(天安郡) 신종면(新宗面) 지역에 속해 있다가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으로 예산군으로 이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신리(上新里), 하신리(下新里)의 일부를 병합하고, 신종리로 예산군 신암면에 편입되었다. 마을 전체가 해발고도 100m 이하의 구릉지가 자리하고 있다. 동쪽에 무한천의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어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삽교천 방조제 이전에는 조수가 들어와 농사를 짓지 못했던 땅이 대부분이었다. 서부 및 중부의 구릉지에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신종 위쪽에 있는 여술(상신), 상평(上坪), 성동(원성굴), 신종 예호뜸(상신), 원신(元新) 등이 있다. 신종교차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1리이고 북쪽이 2리이다. 교통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무한천을 건너 아산으로 통행하는

해평나루가 있었다. 마을의 중앙을 국도32호선인 예당평야로가 마을의 동서로 지나고 있으며, 군도20호선인 추사로가 신종리의 중부를 북서-남동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원성굴 뒷산에 고령토 광산이 있었으며 마을 주민들이 막노동으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신종리 지도

대동샘 위치: 신종리 183-2~3번지

2]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대동샘 유왕제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신종2리 원성골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에 유왕제를 지낸다. 2021년도에는 양력으로 2월 25일 저녁에 지냈다. 언제부터 유왕제를 지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200여 년 전부터라고 믿고 있다.

2) 위치

마을 공동샘인 대동샘이 신종2리 183-2번지와 3번지의 경계에 있다. 신종1리에서 추사로를 따라 북쪽으로 진행하면 신종교차로가 나오고 교차로에서 350m 더 가면 신종1길에 원성골 경로당이 나온다. 경로당 못 미쳐서 좌측으로 대동샘이 있다.

3) 신체

대동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몇 해 전에 샘 주변을 시멘트로 정비를 했다.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철골을 세우고 지붕까지 했다. 현재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마을에서는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 샘이 일반적인데 원성골의 대동샘은 정사각형으로 되어있다. 샘의 한 모퉁이에 양념을 찧던 절구와 작은 맷돌 밑판이 남아 있다. 신체는 봉청남무사해용왕대신지위(奉請喃嘸四海龍王大神之位)라 쓴 지방을 사용한다. 상에 먼저 쌀을 쏟아 놓고 그 위에 지방을 놓고 사발에 쌀을 담아 올려 놓는다. 사발에 쌀을 넣은 것은 초를 꽂기 위한 것이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제관은 나이가 많은 어른이 맡는다.

2) 제비

마을 공동자금으로 지내왔으며 2021년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로 충당했다.

3) 제수와 진설

제사 음식은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다. 제물로는 백설기와 북어포, 팥고물떡, 삼색실과 등을 올리는 데 2021년도에는 돼지머리, 북어, 시루떡, 팥고물떡, 배, 사과, 귤, 딸기, 참외, 포도, 산자를 올렸다. 대추와 밤은 상에 올리지 않고 짚을 깔고, 짚 위에 백지를 깔고, 그 위에 또 짚을 열십자로 놓고 그릇에 담지 않고 무더기로 쌓아 놓았다.

매번 떡은 넉넉히 준비하여 마을 주민들이 모두 먹을 수 있게 했다고 한다. 특별히 팥고물떡은 신년에 드는 액운을 막기 위해 올리는 것으로 다른 제수보다 정성을 들였다.

4) 제의 과정

정월 열나흘날 오전에 남자들이 샘물을 품고 주변을청소한다. 샘 청소가 끝나면 샘 가에 황토를 놓는다. 그리고 우물의 중앙에 옻나무 묶음을 하나 매달아 놓는다. 샘가에 금줄을 느리고 출입을 하지 않는다. 금줄은 짚으로 꼰 새끼이며 흰색 천을 촘촘히 끼우는 것이 아니라 7개를 길게 드리운다.

샘 중앙에 매단 옻나무

외부인의 마을 출입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 길에서부터 마을 안쪽까지 황토를 놓는다. 유왕제를 지내는 열나흘날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황토는 액막이로 부정을 미연에 막고자하는 표시이다. 마을 경로당에서는 부녀회에서 제사음식을 준비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 해가 지면 샘의 네 모서리에 초를 밝히고 진설한다. 진설은 제관이 직접했다.

우물 청소 후 금줄 단 모습

마을 입구 액막이 황토

이때 샘의 한 쪽에서는 샘물을 길어 메를 짓는다. 메를 지어 김에 길게 싸서 샘의 네 모서리에 넣고 물을 바가지로 퍼서 중앙에 매달아 은 옻나무에 뿌린다. 돼지머리에 정성을 표현하는 돈 봉투를 꽂고 기원이 끝나면 제관이 고깔모를 쓰고 고사 준비를 한다.

메를 김에 싸는 모습

메를 우물에 넣는 모습

제관

옻나무에 물 끼얹기

독축

제관이 잔을 올리고 독축을 한다. 뒤에서는 콩대를 태워 연기를 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독축 소리를 조용히 경청한다. 제관이 축문을 읽은 후에 삼배하고 소지를 올린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소지를 올린다. 이때 여자분 한 분이 밤과 대추를 몇 개 들어 고수레를 하고 여자분들은 차례를 지켜 소지를 정성을 다해 올린다. 소지를 올리는 것으로 용왕제는 끝난다.

5) 뒷풀이

용왕제를 마친 후 경로당에 모여 음복을 했다. 특히 팥고물떡을 먹어야 새해에 무탈하다고 여겨 서로 권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

뒷풀이 모습

[3] 동제 이야기

신종2리 유왕제는 다른 샘제와는 다르게 샘 한가운데에 옻나무를 매달아 놓고 물을 뿌린다. 옻나무에 물을 뿌리는 이유는 물을 끼얹어야 한해의 모든 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제관을 맡으신 박승규 어르신이 작성한 용왕제의 내용이다.

2021년 음정월 14일(갑진)오늘은 200여 년 전부터 매년 음력 정월 보름전에 진일(辰日)을 택하여 원성골 공동우물 샘제를 지내는 날이다. 예전에는 제주를 택인하여 제사를 올렸는데 2013년도부터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박승규를 제주로 정하여 제를 올린다. 아침 일찍 마을 이장이 방송을 하자 주민들은 소망과 기대에 찬 얼굴들이 아침 인사를 나누며 회관 및 우물가로 모이기 시작한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소한의 주민들만 동참하기로 했다.

제수 준비

한해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남자들은 우물을 푸고 일부는 옻나무를 베어다 우물 중앙위에 매달고 일부는 황토를 파다가 마을 안길과 우물 입구에 부정 맥이를 한다. 일부는 짚으로 왼손 새끼를 꼬고 아낙네들은 회관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고 메밀범벅(팥떡)을 만들고 각종 제수를 차리느라 분주하다. 제주[제관을 말함]는 축문을 짓고 창호지로 화려하게 조각을 만들고 사해용왕대신지위라고 위목을 쓴다. 이후 목욕재계(沐浴齋戒)하고 정성껏 제를 올릴 준비를 한다. 우물 주변을 말끔히

청소하고 물 푸기가 끝나면 우물 둘레에 준비한 왼손 새끼를 느리고 설경(說經-일종의 종이무구)을 달아 논다. 우물 입구에 부정한 사람이 접근 못 하도록 새끼줄[금줄]로 차단한 후 저녁 제사 때까지 기다린다.

진설

이윽고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 제사가 시작된다. 우물가에 상을 놓고 각종 제물을 진설한다. 홍동백서(紅東白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어동육서(魚東肉西) 순서대로 진설이 끝나면 우물 사각에 촛불을 밝히고 우물가에서 직접 지은 메를 올리고 범벅을 올린 후 제주는 독축을 한다.

원성골 주민들의 무사 안녕과 가족들의 건강과 사업번창, 평안을 기원하는 축문 읽기가 끝나면 삼배를 올린다. 밤과 대추 범벅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던지며 고수레를 한다. 주민들은 우물 주변에 둘러 서서 소지를 올리며 가족들의 건강과 무고안녕을 사해용왕대신전에 간절히 기원한다. 밥술 한술씩 김에 싸서 우물 사방에 넣으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우물 위 중앙에 매달은 옻나무에 물을 끼얹으며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한다.

소지 올리기와 물 끼얹기

이렇게 제사가 끝나면 철상을 하고 우물 사방에 촛불만 남기고 회관으로 들어간다. 훨훨 타는 촛불은 제 몸을 불사르면서 우리 원성골 마을의 건강과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주민들은 회관에서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나누며 온정을 꽃피운다.

제사 지낸 밤과 대추를 먹으면 행운이 따른다고 해서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 우물 동서남북 방향으로 던진 밤과 대추를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 아침 일찍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와서 주을 것이다. 이로써 신축년 샘제는 끝을 맺는다.

미륵제

2. 대흥면 동서리 망태할아버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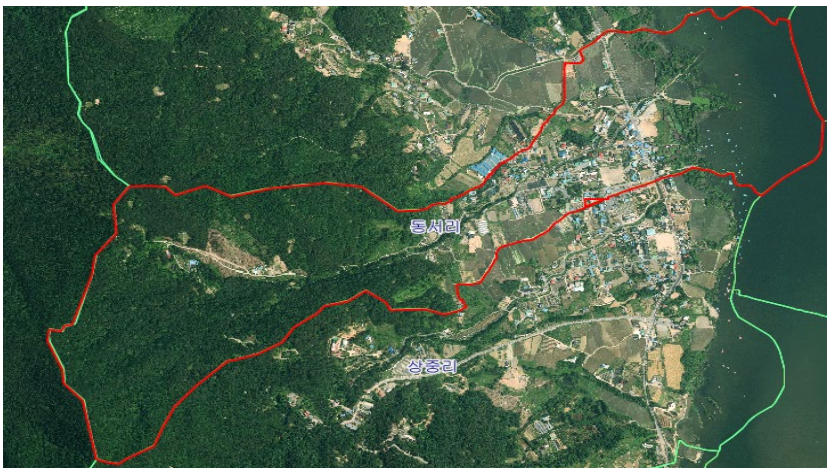
1] 마을연혁

동서리는 대흥면 면소재지에 있다. 동쪽으로 예당저수지와 면해 있고 서쪽으로 봉수산을 경계로 하여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와 접하며, 남쪽으로 대흥면 상중리, 그리고 북쪽으로 대흥면 교촌리와 접하고 있다.

조선조 때에는 대흥군(大興郡) 읍내면(邑內面)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북리(東北里)와 서북리(西北里)를 병합하고, 두 마을에서 한자씩 따서 동서리(東西里)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서북리, 동북리, 사직골, 안거리, 장터 등이 있다. 대흥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객사터, 사정터, 포정정터, 하마터 등이 있고 현재 관아건물이 남아 있다. 동서리는 봉수산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뒤 봉수산 쪽으로는 구릉지대로 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동쪽은 예당저수지와 접하고 있어 토지가 좁다. 전체적으로 마을의 모습은 동서가 길고 남북이 좁은 모양이다. 지방도 619호선인 예당로가 마을의 동부에서 남북 방향으로 지나면서 개설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옛 객사터에

자리 잡은 대흥초등학교가 있고 대흥면행정복지센터가 동서리에 있다. 유적과 유물로는 동서리 유적, 예산 이성만형제 효제비[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가 있으며, 이한직 가옥[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87호]이 있다.



대흥면 동서리

망태할아버지 미륵 위치: 대흥면 동서리 18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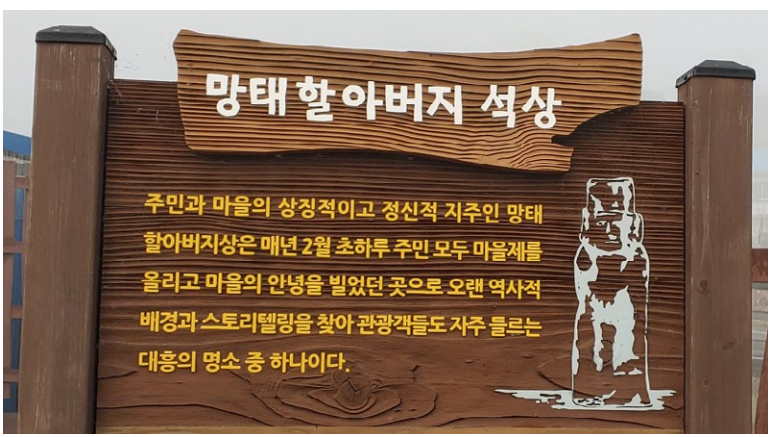
2] 마을의 수호신 망태할아버지

[1] 동제의 전승실태

1) 시기

동서리에 언제부터 석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제사를 지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오래전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해마다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제사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1900년대 초기에 중단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정확한 시기는 미상이다. 1999년 3월 삼짇날 당시 이장이었던 임하규 씨가 망태할아버지 제사를 부활하자는 의견을 내어 다시 제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3]동제이야기 참조) 제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어두워질 무렵에 지냈다고 한다. 2021년에는 음력 2월 1일(양력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제를 지냈다.



2) 위치

동서리를 남북으로 지나는 예당로의 도로변에 있다. 마을에서는 독부처, 돌망태, 망탑할아버지, 망태(望太)할아버지 등으로 부른다. 장승이나 미륵으로 호칭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서리 182번지에 있으며 도로에 연한 동서철물점과 붙어 있다. 북쪽으로는 봉수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변이다. 도로 건너에는 예당공원주차장이 들어섰다.

3) 신체

망태할아버지는 화강암으로 하나의 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높이 103cm, 둘레 167cm, 머리높이 54cm인 석상은 미륵이나 돌부처 형상이다. 대략 보기에는 석인같다. 생략이 심한 아래부분은 홀을 잡은 모양새이지만 머리부분은 문인석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두상을 보아도 뚜렷하게 관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명문이나 조성 날자도 전혀 새겨져 있지 않다.

진설 준비

진설

[2] 동제의 절차

1) 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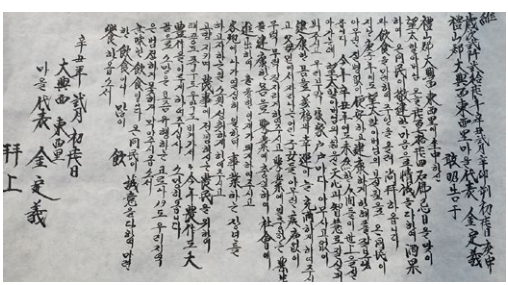
1999년 제사를 지내기 전의 기록은 전혀 없다. 다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이후 제관은 마을 이장이 맡았다. 마을 회의를 통해 제관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이 의무적으로 제관을 맡아 진행한다.

2) 제비

처음에는 마을 공동자금으로 지냈다. 2021년에는 군의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3) 제수 마련과 진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 실과, 팥시루떡, 통북어, 백설기, 막걸리 등이다. 시루떡은 이정진 할머니가 제공하였다. 생존해 있는 동안은 시루떡을 제공하겠다는 말과 함께 실천했다. 진설은 유교식으로 한다. 2021년도 제사 때는 맨 앞줄에 수박, 사과, 배, 감, 밤, 대추를 진설하고 중앙에 돼지 머리를 놓았다. 두 번째 줄에는 참외, 메론, 귤, 바나나, 포도, 딸기를 놓았고, 중앙에 떡시루를 놓았다. 떡시루 옆에는 실타래와 함께 북어와 쌀도 놓았다. 제주는 막걸리를 사용하였다.



2021년 축문

제의복 환복

4) 제의 진행 과정

10시 경 제장으로 주민들이 모였다. 먼저 진설을 하고 미리 준비한 제의복으로 7명이 환복을 했다. 헌관이 분향 후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 후 축문을 낭독하였다. 이어 참석한 주민들이 잔을 올렸다.

이때 덕담이 오고 가면서, 한 쪽에서는 봉투에 돈을 많이 넣어야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로 잔 올리기를 독려하기도 한다.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잔을 올렸다.

잔 올리기

제배

마지막으로 대동소지를 올리면서 마을의 안녕을 축원하였다. 제의가 다 끝나면 음복을 한다. 개신교인들과 제의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모두 음복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음복 후에 통북어를 명주 실타래로 묶어 석상의 머리에 맸다. 그리고 정수리에는 시루떡을 올려 놓았다.

망태할아버지

5) 뒷풀이

예전에는 제사를 마치고 제장에서 음복을 한 후 마을 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음식을 나누었다. 전 과정에 있어 풍물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한다.

[3] 동제 이야기

<망태할아버지 전설>

언젠가 대흥지역에 역병이 들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다. 많은 아이들이 홍역이나 장티프스, 천연두에 희생되었다. 지금과 같이 의약이 갖춰지지 않았던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마을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돌부처를 마을에 세우고 제사를 지내면 된다고 귀띔해 주고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인지라 그 사람이 이른 말 대로 마을에 석상을 만들어 세웠다. 그 후 역병이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돌부처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고 이른 사람이 망태를 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석상을 망태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재의 석상이 이야기에 전하는 석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염병과 석상의 기원과 제의는 관련이 있어 보인다.

<1999년 동제를 시작 "동네 잘되는 일은 해야지">

이 동네에 박해룡 씨라고, 88세에 돌아가신 분인디,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가량 된 어르신이요. 언젠가 그 양반이 도로공사를 하느라고 뉘어놓은 망태할아버지를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려서 들은 얘기로, 옛날에 망태비석은 동네에서 떡시루를 놓고 잘 위하던 건인디, 지금 와서는 얻어 잡숩지도 못한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얘길 듣고 나서 다시 제사를 지내면 좋겠는데, 동네 재정이 넉넉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내가 이장을 볼 때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동네 잘되는 일은 해야지" 라고 동의를 해주었지요. 할머니 한 분이 기꺼이 떡시루하고 제수를 준비하여 망태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게 1999년 삼짇날인디, 그 뒤로 지금까지 주욱 망태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동서리 임하규, 43년생)[16]

<자리 옮겨 탈이 많았던 일>

예전에 도굴꾼들이 석상을 훔쳐 가려고 했다. 길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에 잘 띄었다. 도둑이 밤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다는 데 돌망태가 움직이질 않았다고 한다. 또한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망태할아버지를 면사무소 앞에 옮겨 놓고 방치했었다고 한다. 그 후 마을에 우환이 연이어 일어났다.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 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다. 그때 망태 할아버지를 방치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이 원래 자리에 옮겨 세웠다고 한다.

16)예산 동서·상중리(상),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 민속원, 2009, pp. 224~225 인용

머슴제

3. 대흥면 탄방리 머슴제

1] 마을연혁

탄방리는 대흥면의 동쪽에 위치한다. 동쪽으로 대흥면 금곡리 및 신양면 서계양리, 서쪽으로 대흥면 하탄방리 및 예당저수지, 남쪽으로 대흥면 송지리 및 예당저수지와 접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대흥면 지곡리와 대률리와 각각 접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대흥군(大興郡) 근동면(近東面)에 속해 있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고류동(古柳洞), 상탄방리(下炭防里), 중탄방리(中炭防里)를 병합하고, 탄방리라 하여 예산군 대흥면에 편입되었다.

북서부와 중부에 100m 내외의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마을 중앙으로 탄방천이 흐른다. 탄방천의 범람원 충적지에서 논농사가 이루어진다. 자연마을로는 상탄방, 중탄방, 고류동, 만주뜸 등이 있다. 탄방리의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당진영덕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군도1호선인 형제고개로가 마을 중앙에 탄방천 가로 나 있어 예산으로 통한다. 군도3호선인 예당긍모로는 탄방리의 남쪽 경계 일대에서 신양과 광시로 통하며 서북쪽으로 예당저수로 통하는 길이 연결된다.

대흥면 탄방리

묘소 위치: 대흥면 탄방리 산8

2] 머슴을 기리는 머슴제

[1] 머슴제 전승실태

1) 시기

대흥면 탄방리에서는 매년 2월 초하루에 머슴살이하다가 생을 마감한 윤인섭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이월 초하루는 예로부터 '머슴날' 이라 하여 머슴들에게 하루를 놀도록 배려했다. 주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하여 머슴들에게 한턱을 낸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에 주인은 한해 농사를 부탁하면서 위로하는 뜻을 담아 머슴을 잘 대접하는 것이다. 머슴들은 풍물을 동원하여 노래와 춤을 추며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여유 있는 주인은 용돈을 주어 장에가서 맘껏 즐기고 오라고 한다. 이렇게 2월 초하루 절기에 맞는 장을 머슴장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한 머슴의 나이만큼 떡을 해서 먹였다. 그러면 머슴이 일년 내내 건강하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다.

이 떡을 나이떡, 머슴떡, 노비떡이라고 했다. 탄방리에서는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다 죽은 윤인섭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준다. 마을에서는 머슴제사라 불렀다.

2) 묘소위치

머슴 윤인섭의 묘에서 제사를 지낸다. 묘는 탄방리 산8번지에 있다.

3) 머슴제 주인공 윤인섭

윤인섭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황해도가 고향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는 6.25 때 남하하여 정처 없이 떠돌다가 탄방리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윤인섭은 가족이 없이 혼자 살다가 5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윤인섭은 뇌전증이라는 지병이 있었다. 배움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는 뇌전증이 있는 사람에게 시집온다는 사람은 없었다.

나이 16살 때부터 중탄 박기량씨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남의 집에 머슴으로 있었지만 우직하고 또 성실했다. 일도 열심히 해서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웃마을 무봉리나 신속리에서도 머슴살이를 했다. 착실하게 새경을 모아 땅도 사고 집도 구했다. 탄방리 마을 회관 앞 탄방천 가에 살면서 마을의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나이 50이 넘자 기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쇠약해졌다. 고된 일에 혼자 사는 살림이 건강을 해친 것이다. 병원도 못 가보고 윤인섭이 사망하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의를 통해 윤인섭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마침 머슴살이하면서 받지 못한 새경을 적어 놓은 것이 있어 밀린 새경을 받아냈다. 장사를 지내고 남은 돈으로 600여 평의 동답을 마련했다. 동답을 도지를 주어 나온 돈으로 해마다 2월 초하루 머슴날에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마을 잔치를 벌여 주민 화합을 꾀하고 있다.

장보기

[2] 동제의 절차

1) 제관

제관은 마을 이장이 담당한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제나 목신제 등과는 달리 실존 인물에 대한 제사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금기 사항은 없다.

2) 제비

장사를 치루고 남은 돈으로 구입한 대률리 814번지의 논을 경작하여 나오는 도조(賭租)와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제사를 지낸다.

3) 제수와 진설

묘소에서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동제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머리는 쓰지 않는다. 포와 떡, 실과 등으로 진설한다.

진설

잔올리기

독축

재배

4) 뒷풀이

묘소에서 제사를 지낸 후 마을 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음식을 나누었다. 이제 윤인섭 머슴과 동시대를 살았던 동네 노인들이 없다. 윤인섭이라는 인물을 보았더라도 어린시절의 기억에 있기 때문에 윤인섭의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증언을 못하고 있다. 다만 앞 세대들이 전하는 이야기로만 형상화 되어 이제는 전설적 인물로 남게 되었다.

[3] 동제 이야기

탄방리는 산신제나 목신제를 지냈다는 기록이나 전해오는 이야기가 없으나 마을의 동쪽에 느티나무 노거수가 여러 그루 있었다. 오래된 나무여서 목질부가 다 비어 고풍스럽게 서 있었으나 나무장사에게 팔려 베어지게 되었고 현재는 나무가 있었던 터도 지형이 변하여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마을에서 위했던 나무들이 쉽게 잘려나가면서 그동안 지내오던 동제도 중단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탄방리의 머슴제는 흔치 않은 동네 행사이다. 예전에는 윤임섭과 같이 후손을 두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마을에 희사하여 사망 후 장례와 제사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제사의 전통을 오랫동안 이어온 경우는 드물다. 무주고혼의 외로운 혼령까지도 위무해 주는 아름다운 풍습이 탄방리 머슴제다.

예산 동제의

Ⅴ. 특징

예산 동제의 특징

1. 산신제의 특징

민간신앙은 특정한 교조(敎祖)나 교리(敎理), 조직(組織)을 가지지 않는다. 단지 일반 민중의 생활 속에서 전승(傳承)되고 있는 신앙형태일 뿐이다. 기성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미신으로 분류하기 쉬우며 사회변화에 따라 전승의 양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창교자가 없고, 계시적(啓示的)으로 짜여진 내용을 갖추지도 않았다.

신앙의 체계화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고 조직체도 없다.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왔다는 선험적 기능을 들어 설명하지만 하나의 신앙체계로 보기가 어렵다. 개인 신앙이 아닌 공동체적 신앙으로 자리 잡아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 집단만의 특징적인 신앙적 요소를 갖추게 된다.

2019년 조사된 자료[17)]에 의하면 예산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마을이 22개 마을이다. 당시에도 22곳의 마을 중에서 12곳은 전승이 되고 있었고 10곳은 전승이 중단되었다. 산신제는 동제 중에서 가장 전승력이 강하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일반 자연물은 산이 가지는 시간적 영속성과 공간적 항구성에 미치지 못한다. 산이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공간, 그래서 산은 우주로 통하는 문이라는 사유가 만들어 졌고 천신이 산을 통해 인간 세상과 소통한다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천신과 산신을 동격화 하기에 이른다.

더 나아가 산은 천신이 하늘과 지상을 왕래하는 통로이면서 또한 거처하는 공간으로 설정하게 된다. 예산의 산신제는 그 대상이 산신이나 산신령이다. 광시면 대리와 덕산면 광천리에서 호랑이를 산신으로 신격화함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정서에 산신이 곧 호랑이라는 인식은 보편적인 예이다. 시간이 지나도 산제당의 위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다만 당의 형태가 초가에서 기와로 개축된다든지, 시멘트로 재건하는 경우는 있지만 위치 변경은 드물다.

신암면 예림리의 경우는 삽교천방조제 공사로 덕적도 뱃사람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삽교천 물가에 자리하고 있던 제당이 부득이하게 마을 안쪽 당집봉이라는 산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신암면의 예림리, 조곡리처럼 산신제만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산제당, 장승제, 목신제를 순차적으로 지내는 마을도 있다. 광시면 대리의 경우 산제당에서 먼저 지내고 장승제, 목신제를 순차적으로 지냈다.

본래는 삼신당제와 샘제까지 지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현재는 마을 중앙의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목신제만 지내고 있다. 광시면 운산리의 경우 산제, 오방제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각 가정의 맛시루 순으로 지내던 것을 현재는 자연제단에서 산제를 지낸 후 당집 앞에서 약소하게 오방제를 지내고 있다. 상당, 중당, 하당 순으로 동제를 지냈던 대흥면의 갈신리도 이제는 상당 위주의 산신제만 지내고 있다. 산신제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산신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확연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상황이 산신제의 필요성을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지역문화유산 발굴조사사업 용역최종보고서(2019)

2. 목신제의 특징

예산군의 보호수와 정주나무는 88그루가 조사되었다.[18] 군나무 23, 마을나무 24, 읍면나무 23, 면나무 1, 천연기념물 1, 도나무 8, 기타 8 그루이다. 수종을 보면, 느티나무 56, 은행나무 6, 둥구나무 6, 정주나무 4, 팽나무, 참나무, 괴목 등 각각 2, 향나무, 서낭나무, 정자나무, 백송, 풍흉을 점치는 나무 등은 각각 하나씩이었다. 둥구나무, 정주나무, 정자나무, 서낭나무, 괴목 등은 명확하게 수종을 밝히지 않았지만 느티나무일 경우가 많다. 2019년 보고된 목신제[19] 지내는 마을이 14개였다.

조사 당시에 5개 마을이 전승이 중단되었고, 9개 마을은 목신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21년도에 목신제를 지낸 곳이 대흥면 교촌리, 대술면 마전1리, 대흥면 상중리, 고덕면 대천3리 등이었는데 실제로 목신제를 지낸 곳은 대흥면 상중리였고, 봉산면 봉림리와 신양면 차동리는 칠석제를 지냈는데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동제를 지내는 형식이라 목신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목신제는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를 대상으로 지낸다.

대개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洞口)나무라고 한다. 혹은 마을의 중앙에 있어 한여름 무더위에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곳은 봄과 가을에도 마을 주민들의 회합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수종을 보아도 특별한 수종이 아니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종이 대부분이다. 느티나무가 가장 많고 은행나무, 팽나무, 향나무, 참나무 등 이었다. 예전에는 마을 어귀나 마을의 중앙에 수령을 어림할 수 없는 고목이 마을마다 있었다. 목질부가 비어 있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도로를 내면서

인위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다. 고사 된 나무가 있었던 장소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다시 나무를 심어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로 삼았다.

마을 중앙에 버티고 있는 둥구나무는 마을 주민들의 위함을 받으며 신목(神木)으로서 역할을 한다. 봄에 물이 오른 둥구나무의 잎이 어떻게 피느냐가 관심거리였다. 특히 느티나무의 경우 잎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농사라는 것이 우순풍조가 관건이다. 봄에 비가 알맞게 내리면 자연스럽게 잎사귀가 고르게 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농사의 시작기에 보여준 이러한 느티나무의 징조는 길조가 분명하고 그것이 한 해 동안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둥구나무는 마을의 위함을 받는 나무에서 국가나 사회 변혁의 큰 사건에도 이상 징조를 보여 영험성을 드러낸다. 대부분 소리로 흉조를 알렸다는 이야기로 집약된다.

목신제는 정월이나 2월에 지내는 경우가 많다. 년초에 지낼 경우 산신제나 샘제와 병행하기도 한다. 칠월칠석에도 지내는 마을이 많다. 이 경우 두레 먹이와 함께 이루어진다. 봄에 농사를 시작하면 휴식을 취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칠석의 경우 농사일에서 벗어나 짬을 낼 수 있었다. 한여름 더위를 피하기에 둥구나무 그늘만한 것이 없다. 이때 목신제는 봄철의 노고를 서로 치하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축제이다. 목신제 전승도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손이 부족한 봄철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속담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성능 농기계의 보급으로 예전같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의 세대 교체와 인구감소로 인해 목신제는 전승력을 잃게 되었다.

18)이인화, 앞의 책, p.524
19)지역문화유산 발굴조사사업 용역최종보고서(2019)

3. 유왕제·미륵제·머슴제의 특징

시대의 변화는 동제의 전승 중단뿐만 아니라 그 모습도 바꾸어 놓았다. 상수도가 놓이기 전에는 마을의 우물을 이용했다. 각 가정에 펌프가 보급되기 전까지 마을의 공동샘인 대동샘을 이용했다. 한 마을 모든 주민의 생명수였기 때문에 대동샘은 1년 내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했다. 대동샘을 공유하는 주민들은 한 식구나 다름없었다.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은 대동샘을 통해 결속을 다지게 된다.

특히 한해가 시작되는 정월에는 대동샘은 단순한 음용수의 샘이 아닌 마을 주민의 위함을 받는 종교적 상징성으로 부각된다. 자연수의 물은 하나다. 내가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어 각각 구분되는 것 같지만 물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되었다.

물을 관장하는 신은 용이다. 육지의 모든 물은 바다와 닿아 있다. 따라서 바다의 신인 용이 육지의 모든 물까지 관장한다는 생각과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은 생명이고 풍요고 정화다. 그래서 대동샘은 끊이지 않고 솟아나 생명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마을의 편안을 바라는 염원은 정월 초에 유왕제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에 의하면 예산의 유왕제는 14곳에서 지냈다.

14개 마을 중 3곳만 7월에 유왕제를 지냈고 그 외는 정월이나 2월 초하루에 지냈다. 2009년 당시에 4곳에서만 유왕제가 이루어 지고 있어 전승의 어려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021년 현재, 신암면 계촌리와 신종2리에서 유왕제가 있었다. 계촌리는 산신제와 함께 지냈고, 신종2리는 유왕제만 지냈다. 예산의 미륵제는 8개 마을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2021년에는 대흥면 동서리 망태할아버지제만 지냈다. 미륵제는 석상이 있는 마을에서만 지내는 것이어서 다른 동제와는 차별적이다. 2019년 조사 당시에도 8개 마을 중 2개 마을 만이 미륵제가 전승되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전승에 대한 기대가 가장 어려운 동제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동제 조사에서 제외되었던 머슴제가 대흥면 탄방리에서 있었다.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다 일가친척과 후손 없이 죽은 머슴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머슴제는 그 유사한 유래가 없다. 매년 동네 주민들에 의해 지내왔던 동제인데도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개인을 위한 제사형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동제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마을 공동체의 발원을 담게 된다는 기준으로 보면 머슴제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무주고혼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동제로 취급해야 한다. 탄방리에서는 매년 2월 초하루로 제사일을 정하고 제사를 마친 다음에 마을 주민 전체가 뒷풀이를 하면서 함께 음복을 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머슴제'는 동제의 외연 확대라 할 수 있다. 지내는 마을이 14개였다.

저자: 박광수
논저: 팔상명행녹연구
강릉추월전연구
매화전연구 및 「구비전승 민담과 민요」(대전광역시 서구사)
「대전의 구비문학 현황과 보존방안」(대전문화제 20호)
대전의 산과 하천(공동집필)
충청남도지 윤문 등 참여

도움주신분들
광시면 대리 - 윤병국, 서동진, 이향래
광시면 운산1리 - 교정행, 안선제, 이기정
대흥면 갈신1리 - 성백문, 김종만, 성백범, 양태경
덕산면 광천2리 - 원주세, 이상현, 정정섭
신암면 계촌리 - 박계원, 이옥재, 이상을
신암면 예림1리 - 이승현, 권오철, 서철원, 서창원
신암면 조곡1리 - 이홍구, 이정호, 김영대, 김득구, 정성룡, 이원호
대흥면 상중리 - 정원용, 김영재, 정길태, 강경구
신양면 차동리 - 박성림, 김영길, 이규선, 박돈화, 박성동
신암면 신종2리 - 박선신, 박승규, 권영식
대흥면 동서리 - 김정의, 임하규, 정윤택, 유기진
대흥면 탄방리 - 신영규, 박기명, 박병수, 박득수, 박성수

예산의 동제

인쇄_ 2021년 12월 24일
발행_ 2021년 12월 31일

지은이_ 박광수
펴낸이_ 김종옥
펴낸곳_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대회리)
TEL. 041-335-2441
기획_ 박세진
편집위원_ 김종옥, 김태영, 양명석, 윤용혁, 이강열
행정지원_ 박세진, 이충환, 이수영, 장혜민

제작_ (주)디자인붓뜨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41, 103호
TEL. 041-338-4311

ISBN 979-11-91120-22-6
ⓒ 박광수, 예산문화원2021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책은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